

濟州教育大學 學生들의 特性 및 實態 調查研究

金 榮 龍

〈 目 次 〉

I. 緒 論	3. 經濟與件
II. 研究內容 및 方法	4. 本校志望과 深化課程 選擇
1. 調查對象	5. 大學生活에 對한 態度와 關心事項
2. 調查內容	6. 異性 및 結婚觀
3. 調查方法 및 處理	IV. 要約 및 提言
4. 研究의 制限點	參考文獻
III. 結果 및 解釋	Summary
1. 身上特性	
2. 家庭環境	

I. 緒 論

오늘날의 社會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急速한 速度로 多樣한 變化를 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社會變動에 適應하기가 대단히 힘들게 된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知識과 科學技術이 너무나 현저하게 發展하고 있고, 經濟적으로 볼때에도 後進의인 體制에서 벗어나 近代化된 經濟體制로 跳躍하면서 最近들어서는 高度의 經濟成長을 가져온 것이 周知의 事實인데, 이러한 추세는 급격한 環境變化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教育分野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教育과 社會變動을 항상 관련시켜 다루게 되는 것도 多樣한 社會問題를 올바르게 解決하고 對處해 나가는데 그 目的이 있다. 「學校는 社會變遷을 反映하는 거울」이라는 말(張眞鎬, 1986)이 있는 것처럼, 教育은

社會變動에 따라 教育의 目標과 教育課程을 改善함으로써 社會的인 要求에 끊임없이 適應시켜 나가야 함은 물론 바람직한 社會 變動을 가져오게 하는 主體로서 그 役割을 다해야 한다. 특히나 創意的인 大學教育和 社會變動과는 대단히 密接한 關係에 있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서 大學의 主人인 大學生은 發達段階的인 측면에서 볼 때 靑少年期에서 成人期로 접어드는 中間段階의 過渡期的인 狀態이므로 많은 問題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入試爲主의 受動的이고 周知主義的인 高等學校에서 大學入學이라는 절박한 狀況속에서 자신의 많은 欲求를 참아올 수 있었는데 일단 大學에 入學하게 되면 많은 時間과 自由를 얻기도 하지만, 試驗과 成績, 그리고 對人關係, 價値 및 人生觀 등의 問題로 學生들이 混沌과 挫折 또는 葛藤을 겪게된다. 이와 같은 個人的인 與件이외에 社會의 복잡한 構造나 흐름, 家庭環境, 大學 雰圍氣 등에 의해 大學生의 意識構造에 끊임없는 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복잡한 環境속에서 大學은 學生들에게 새로운 狀況에 잘 適應하여 創意的이고 效果的인 大學生活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學校에 있어서의 모든 活動은 被教育者인 學生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그들의 位置에 대한 的確한 판단을 中心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즉 學生들을 올바르게 理解하는 生活指導는 學校教育에 있어서 重大한 使命이다.

그러므로 現代教育에 있어서 生活指導活動은 教科指導活動 못지 않게 重要한 教育活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生活指導活動의 教育計劃의 效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學生指導資料를 基礎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學生指導나 相談에 있어서 正確하고 正確한 理解가 先行되지 않으면 成功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本 研究는 濟州教育大學 學生들의 學校生活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特性과 實態를 正確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學生指導活動을 위한 基礎資料를 얻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研究內容 및 方法

1. 調查對象

本 調查研究의 對象은 濟州教育大學에 在學中인 1, 2, 3學年 學生들로서 176명이었는데, 이들 全員에게 設問紙를 配付하고 回收하였으나 回收된 資料中 反應이 分明하지 않은 不誠實한 것을 除外하고 151명에 대하여 分析하였다. 調查對象者의 學年別·性別 分布는 <표 0>과 같다.

< 표 0 > 조사 대상자의 분포 (명)

구 분	1 학년	2 학년	3 학년	계
남학생	16	13	9	38
여학생	40	36	37	113
계	56	49	46	151

2. 調查內容

學生들의 大學 適應과 관련된 特性 및 實態를 알아보기 위하여 6個 領域의 內容을 調查하였다. 全領域에서 46問項으로 構成된 設問紙를 使用하여 調查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 身上特性：宗教, 再修經驗, 主된 成長地, 出身地域 등 4개 問項.
- 家庭環境：祖父母와 父母의 生存與否, 全體家族數, 出生順位, 居住條件, 父母의 教育程度, 父母의 職業, 父母에 대한 生覺, 家庭雰圍氣 등 8개 問項.
- 經濟與件：家庭의 經濟形便, 學費調達方法, 學費調達 事情, 용돈水準, 副職希望與否, 副職希望理由 등 6개 問項.
- 本校 志望과 深化課程 選擇：本 大學에 支援한 動機, 本校 學生으로서의 矜持, 教職에 대한 見解, 深化課程 選擇要因, 深化課程의 滿足度, 深化課程 轉科 希望與否 등 6개 問項.
- 大學生活에 대한 態도와 關心事項：高校時節 大學入學後 가장 바랬던 點, 大學生活中 가장 經驗하고 싶은 것, 希望 써클活動, 卒業後 進路計劃,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成功要因, 學校에 대한 關心事項, 가장 큰 當面問題, 不安解消 方法, 신뢰하는 相談者 有無, 자신의 問題를 相談하는 相對, 學生指導研究所 相談教授와의 相談希望, 特講에 대한 見解, 원하는 特講內容, 特講希望時間, 本 大學의 施設 및 環境 등 16개 問項.
- 異性 및 結婚觀：異性交際 與否, 異性交際 動機, 異性交際 하지 않는 理由, 結婚 相對者의 選擇條件, 結婚 相對者의 學力水準, 結婚 相對者의 職業 등 6개 問項.

3. 調查方法 및 處理

前記한 바와 같은 內容으로 構成된 46개 項目의 設問紙를 作成하여 1987. 3. 26~ 3. 29일 까지 學年別로 配付하고 이를 回收하였는데, 다만 身上特性에 關한 內容中 1개 項目은 學生카드에서 추출하여 資料化하였다. 資料分析은 學年과 性別에 따른 特徵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調查內容을 學年別, 性別로 分類하고 일반적으로 解釋하기 容易하도록 各 問項에 대한 頻度數와 百分率을 算出하였다.

4. 研究의 制限點

大學生의 特性 및 實態에 관한 問題는 本 研究에서 다루어진 問題外에도 많은 問題領域이 있으나, 本 研究에서는 6 개의 問題領域으로 研究範圍를 制限시켰다. 그리고 設問紙의 問項構成은 各 領域마다 設問의 性格에 따라 問項數, 設問方式등을 달리하였다. 또한 本 研究는 濟州教育大學 1, 2, 3 學年 學生에 局限시켜 사실적인 資料의 提示에 주된 強調點이 있으나 現象을 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大學生의 普遍的인 面을 그대로 反映시키는 것이 아니라 制限點을 스스로 內包하고 있다.

III. 結果 및 解釋

1. 身上特性

1) 宗 教

學生들의 宗教를 調查한 結果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宗教를 가지고 있지 않은 學生이 전체의 51%로서 2년전에 調查한 것과 比較하면 10%나 增加되었다. 學年別로는 3학년에서 45.7%이었으나 2학년 53.1%, 1학년 53.6%로서 1, 2학년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비율이 높았다. 宗教를 갖고 있는 學生中에는 佛教 22.5%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7.2%, 카톨릭 9.3%의 順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기독교, 카톨릭, 佛教의 順으로 되는 최근 他大學(경희대, 공주사대, 군산대, 동아대, 서울교대, 원광대, 충남대)의 경우와 比較하면 本校의 佛教學生 비율이 強勢인 것은 特異하였다.

<표 1> 宗 教

구분	항목	기독교		불교		카톨릭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없음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	6.3	4	25.0	1	6.3	10	62.5	16
	여	8	20.0	7	17.5	5	12.5	20	50.0	40
	계	9	16.0	11	19.6	6	10.7	30	53.6	56
2 학 년	남	1	7.7	4	30.8	8	61.5	13
	여	7	19.4	8	22.2	3	8.3	18	50.0	36
	계	8	16.3	12	24.5	3	6.1	26	53.1	49
3 학 년	남	2	22.2	2	22.2	5	55.6	9
	여	7	18.9	9	24.3	5	13.5	16	43.2	37
	계	9	19.6	11	23.9	5	10.9	21	45.7	46
총계		26	17.2	34	22.5	14	9.3	77	51.0	151

性別과 宗教와의 關係를 보면 男學生의 경우 女學生보다 宗教를 가지지 않은 比率이 높았으나, 宗教를 갖고 있는 學生은 3학년의 기독교와 1, 2학년의 佛敎學生을 除外하고는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比較的 낮은 分布를 보였다. 더구나 2, 3학년의 경우에는 카톨릭을 믿는 男學生이 全無하였다.

2) 再修經驗

<표 2>는 再修經驗에 대하여 조사한 結果이다. 再修를 하지 않은 學生이 89.4%로서 1, 2, 3학년 모두 89% 水準이었다. 1년 再修한 經驗은 1학년 8.9%, 2학년 8.2%로 1, 2학년 모두 비슷한 水準이었으나, 3학년에서는 더욱 낮은 4.4%이었는데, 全體的으로는 7.3%였고 男學生은 女學生보다 1년 再修經驗率이 훨씬 높았다.

<표 2> 재 수 경 험

구분	항목	없 다		1년		2년		3년이상		검정고시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4	87.5	2	12.5	16
	여	36	90.0	3	7.5	1	2.5	40
	계	50	89.3	5	8.9	1	1.8	56
2 학 년	남	11	84.6	2	15.4	13
	여	33	91.6	2	5.6	1	2.8	36
	계	44	89.8	4	8.2	1	2.0	49
3 학 년	남	5	55.6	2	22.2	2	22.2	9
	여	36	97.3	1	2.7	37
	계	41	89.1	2	4.4	3	6.5	46
총계		135	89.4	11	7.3	1	0.7	4	2.6	151

3) 주된 成長地

學生들이 成長한 地域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市廳所在地가 49.7%, 邑面所在地 35.8%, 郡廳所在地 5.3%이었고, 벽지 7.3%, 도서 2%로 나타났다. 性別로 보면 男學生은 女學生보다 벽지출신이 많고 女學生은 男學生에 비해 市地域에서 온 學生이 많았다. 도서출신은 2, 3학년에선 한명도 없으나 1학년은 5.4%나 되었다.

4) 出身地域

<표 4>는 學生들의 出身地域(出身道)을 나타낸 結果인데, 濟州道 出身 學生이 96.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외의 地域인 全라남도(1.7%), 경상북도(1.1%), 충청남도(0.6%)등 3개의 他道出身 學生은 3.4%에 불과했다.

〈표 3〉 주된 성장지

구분	항목	시지역		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벽지		도서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6	37.5	1	6.3	6	37.5	2	12.5	1	6.3	16
	여	22	50.0	1	3.6	12	30.0	3	7.5	2	5.0	40
	계	28	50.0	2	3.6	18	32.1	5	9.0	3	5.4	56
2 학 년	남	4	30.8	1	7.7	4	30.8	4	30.8	.	.	13
	여	19	52.8	1	2.7	16	44.4	36
	계	23	46.9	2	4.1	20	40.8	4	8.2	.	.	49
3 학 년	남	3	33.3	.	.	4	44.4	2	22.2	.	.	9
	여	21	56.8	4	10.8	12	32.4	37
	계	24	52.2	4	8.7	16	34.8	2	4.3	.	.	46
총계		75	49.7	8	5.3	54	35.8	11	7.3	3	2.0	151

〈표 4〉 출 신 지 역

구분	출신도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계명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8	100	18
	여	41	95.4	1	2.3	1	2.3	.	.	43
	계	59	96.8	1	1.6	1	1.6	.	.	61
2 학 년	남	13	92.2	1	7.1	14
	여	43	95.6	1	2.2	1	2.2	.	.	45
	계	56	94.9	1	1.7	1	1.7	1	1.7	59
3 학 년	남	9	90.0	1	10.0	10
	여	46	100	46
	계	55	98.2	1	1.8	56
총계		170	96.6	3	1.7	2	1.1	1	0.6	176

2. 家庭環境

1) 祖父母와 父母의 生存與否

祖父母의 生存與否는 〈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안계신 경우가 41.1%로 가장 많았고, 祖母만 계신 學生은 36.4%, 祖父母 生存이 19.9%로 낮아졌는데 祖父만 생존한 경우는 극히 낮은 分布로서 0.6%뿐이었다. 그런데 祖父母 모두 안계신 경우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父母의 生存與否를 묻는 調査에서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父母 모두 生存해 계시는 學生이 80.8%로 가장 많은 分布를 보였고, 母生存 父死亡이 17.2%, 父母 모두 死

< 표 5-1 > 조부모의 생존 여부

구분	항목	조부모생존		조부만생존		조모만생존		모두안계심		무 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3	18.7	·	·	5	31.2	8	50.0	·	·	16
	여	9	22.5	1	2.5	24	60.0	6	15.0	·	·	40
	계	12	21.4	1	1.8	29	51.8	14	25.0	·	·	56
2 학 년	남	1	7.7	·	·	4	30.7	6	46.1	2	15.4	13
	여	8	25.0	·	·	10	27.7	18	50.0	·	·	36
	계	9	18.4	·	·	14	28.6	24	49.0	2	4.1	49
3 학 년	남	·	·	·	·	1	11.1	7	77.7	1	11.1	9
	여	9	24.3	·	·	11	29.7	2	45.9	·	·	37
	계	9	19.6	·	·	12	26.1	3	52.2	1	2.2	46
총계		30	19.9	1	0.6	55	36.4	62	41.1	3	2.0	151

< 표 5-2 > 부모의 생존 여부

구분	항목	부모모두생존		부만 생존		모만 생존		모두안계심		무 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3	81.6	·	·	3	18.6	·	·	·	·	16
	여	29	72.5	·	·	11	27.5	·	·	·	·	40
	계	42	75.0	·	·	14	25.0	·	·	·	·	56
2 학 년	남	8	61.5	·	·	4	30.8	·	·	1	7.7	13
	여	33	91.7	·	·	2	5.6	·	·	1	2.8	36
	계	41	83.7	·	·	6	12.2	·	·	2	4.1	49
3 학 년	남	8	88.9	·	·	·	·	1	11.1	·	·	9
	여	31	83.9	·	·	6	16.2	·	·	·	·	37
	계	39	84.8	·	·	6	13.0	1	2.2	·	·	46
총계		122	80.8	·	·	26	17.2	1	0.7	2	1.3	151

한 경우 0.7%이었는데 父親만 생존해 있는 學生은 全無하였다. 他大學(경희대, 군산대, 동아대, 서울교대, 원광대, 충남대)의 學生生活研究所에서 조사한 양친 모두 생존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86.6~90.7%로서 平均 89.2%와 비교해 보면 本 調査에서 나타난 80.8%는 낮은 分布로 나타났다.

2) 全體 家族數

< 표 6 >은 學生 本人을 포함한 全體 家族數를 조사한 결과로서 가족수 7명이 27.2%로 가장 높았고 6명 23.8%로서 6~7명의 가족이 모두 51%인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8명 16.6%, 5명 15.3%, 4명 6%, 3명 4%의 順이었는데, 現代의 核家族 社會에서 大家族이라 할 수 있는 9명이나 되는 家族의 學生 比率은 4.6%에 불과하였다. 2년전 본

〈표 6〉 전 체 가 족 수

가족수 구분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상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남	·	·	1	6.3	2	12.5	2	12.5	3	18.8	5	31.3	3	18.8	·	·	·	·	16
학 여	·	·	3	7.5	4	10.0	6	15.0	6	15.0	11	27.5	8	20.0	2	5.0	·	·	40
년 계	·	·	4	7.2	6	10.7	8	14.3	9	16.1	16	28.8	11	19.6	2	3.6	·	·	56
2 남	·	·	·	·	·	·	5	38.5	1	7.7	3	23.1	3	23.1	·	·	1	7.7	13
학 여	·	·	1	2.8	2	5.6	2	5.6	11	30.6	11	30.6	6	16.7	1	2.8	2	5.6	36
년 계	·	·	1	2.1	2	4.1	7	14.3	12	24.5	14	28.6	9	18.4	1	2.1	3	6.2	49
3 남	·	·	·	·	·	·	2	22.3	5	55.6	2	22.2	·	·	·	·	·	·	9
학 여	·	·	1	2.7	1	2.7	6	16.2	10	27.0	9	24.3	5	13.5	4	10.8	1	2.7	37
년 계	·	·	1	2.2	1	2.2	8	17.4	15	32.6	11	23.9	5	10.9	4	8.7	1	2.2	46
총계	·	·	6	4.0	9	6.0	23	15.3	36	23.8	41	27.2	25	16.6	7	4.6	4	2.6	151

대학에서 調査(成周鉉, 1985)當時에는 家族數 3명이 全無하였으나, 本 調査에서 家族數 3명인 全體 學生比率은 4%로 높아졌고 特히나 新入生의 경우는 7.2%로서 現代의 核家族化 社會를 잘 反映해 주었다.

3) 出生順位

出生順位를 調査한 것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번째가 27.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첫번째로서 첫번째와 2번째를 합하면 51.6%인 절반 이상이나 되었으며, 3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出生順位가 밀려질수록 學生들의 分布率도 점차 減少되었다.

〈표 7〉 본인의 출생순위

항목 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상		무반응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남	2	12.5	4	25.0	3	18.8	5	31.3	·	·	·	·	·	·	1	6.2	1	6.2	16
학 여	13	32.5	13	32.5	4	10.0	1	2.5	6	15.0	1	2.5	1	2.5	·	·	1	2.5	40
년 계	15	26.8	17	30.4	7	12.5	6	10.7	6	10.7	1	1.8	1	1.8	1	1.8	2	3.6	56
2 남	2	15.4	3	23.1	2	15.4	2	15.4	·	·	3	23.1	1	7.7	·	·	·	·	13
학 여	7	19.4	10	27.8	4	11.1	10	27.8	3	8.3	1	2.8	1	2.8	·	·	·	·	36
년 계	9	18.4	13	26.5	6	12.2	12	24.5	3	6.1	4	8.2	2	4.1	·	·	·	·	49
3 남	3	33.3	1	11.1	2	22.2	2	22.2	·	·	1	11.1	·	·	·	·	·	·	9
학 여	9	24.3	11	29.7	8	21.6	4	10.8	1	2.7	1	2.7	3	8.1	·	·	·	·	37
년 계	12	26.1	12	26.1	10	21.7	6	13.0	1	2.2	2	4.3	3	6.5	·	·	·	·	46
총계	36	23.8	42	27.8	23	15.2	24	15.9	10	6.6	7	4.6	6	4.0	1	0.7	·	·	151

4) 居住條件

〈표 8〉은 學生들이 生活하고 있는 居住條件의 結果로서 자취하는 학생이 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택 41.1%, 친척집 8% 順이었는데, 下宿生은 新入生の 경우에만 5.4%로 나타났을 뿐 2학년이나 3학년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自宅이 54%, 자취 10.42%인 서울교대 학생들의 分布比率(姜駿模, 1987)과 비교해 보면 本校 學生들의 자취생활 分布比率이 현저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자취생을 학년별로 보면 3학년이 32.6%인

<표 8> 주 거 조 건

구분	항목	자택		친척집		하숙		자취		기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5	31.3	1	6.3	2	12.5	8	50.0	.	.	16
	여	17	42.5	1	2.5	1	2.5	15	50.0	1	2.5	40
	계	22	39.3	2	3.6	3	5.4	28	50.0	1	1.8	56
2학년	남	6	46.2	6	46.2	1	7.7	13
	여	11	30.6	6	16.7	.	.	19	52.8	.	.	36
	계	17	34.7	6	12.2	.	.	25	51.0	1	2.0	49
3학년	남	3	33.3	5	55.6	1	11.1	9
	여	20	54.1	4	10.9	.	.	10	27.0	3	8.1	37
	계	23	50.0	4	8.7	.	.	15	32.6	4	8.7	46
총계		62	41.1	12	8.0	3	2.0	68	45.0	6	4.0	151

데 비해 1~2학년은 50~45%로서 低學年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그런데 자취하는 學生들을 학년과 성별로 分析해 보면 2학년 女學生은 52.8%로 가장 높은 반면 3학년 女學生은 27%로 男學生 55.6%보다 절반수준도 되지 않았다.

5) 父母의 教育程度

父의 教育程度<표 9-1>는 高卒이 32.4%로 가장 높았고, 國卒 19.8%, 中卒 16.5%,

<표 9-1> 부모의 교육 정도(부)

구분	항목	대졸		대중퇴		고졸		고중퇴		중졸		중중퇴		국졸		한학		무학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2	12.5	.	.	2	12.5	.	.	2	12.5	.	.	7	43.7	3	18.7	16
	여	6	15.0	1	2.5	13	32.5	2	5.0	8	20.0	1	2.5	5	12.5	4	10.0	40
	년계	8	14.2	1	1.7	15	26.7	2	3.5	10	17.8	1	1.7	12	21.4	7	12.5	56
2학년	남	2	15.3	.	.	1	7.6	1	7.6	7	53.8	.	.	1	7.6	1	7.6	13
	여	4	11.1	2	5.5	13	36.1	2	5.5	6	16.6	1	2.7	5	13.8	1	2.7	1	2.7	1	2.7	36
	년계	4	8.1	2	4.0	15	30.6	2	4.0	7	14.2	2	4.0	12	24.4	1	2.0	2	4.0	2	4.0	49
3학년	남	5	55.5	.	.	2	22.2	1	11.1	.	.	1	11.1	9
	여	3	8.1	2	5.4	14	37.8	2	5.4	6	16.2	1	2.7	6	16.2	3	8.1	37
	년계	3	6.5	2	4.3	19	41.3	2	4.3	8	17.3	2	4.3	6	13.0	1	2.1	.	.	3	6.5	46
총계		15	9.9	5	3.3	49	32.4	6	3.9	25	16.5	5	3.3	30	19.8	2	1.3	2	1.3	12	7.9	151

大卒 9.9%였다. 高卒學力の 아버지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 26.7%, 2학년 30.6%, 3학년 41.3%로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父의 高卒學力도 점차 높아졌다. 이와 반면에 大卒의 경우는 3학년 6.5%, 2학년 8.1%, 1학년 14.2%로 低學年의 父親일수록 大卒學力이 점차 增加되었다.

母의 教育程度<표 9-2>는 國卒이 62.9%로 가장 많은 分布였고 中卒 10.5%, 無學 9.2%였다. 高卒學力이 父親의 경우 32.4%였으나 母親의 경우엔 겨우 6%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中卒까지의 學力이 아버지의 경우 65.9%인데 비하면 어머니의 경우엔 19%로서 아버지는 어머니의 경우보다 무려 3.5배나 높고 母親의 教育程度는 대단히 낮았다.

<표 9-2> 부모의 교육정도(모)

항목 구분	대졸		대중퇴		고졸		고중퇴		중졸		중중퇴		국졸		한학		무학		무반응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남	·	·	·	·	1	6.2	·	·	1	6.2	·	·	10	62.5	·	·	4	25.0	·	·	16
학여	1	2.5	·	·	2	5.0	·	·	8	20.0	2	5.0	24	60.0	1	2.5	1	2.5	1	2.5	40
년계	1	1.7	·	·	3	5.3	·	·	9	16.0	2	3.5	34	60.7	1	1.7	5	8.9	1	1.7	56
2남	·	·	·	·	·	·	·	·	1	7.6	1	7.6	7	53.8	1	7.6	3	23.0	·	·	13
학여	·	·	1	2.7	5	13.8	1	2.7	3	8.3	2	5.5	19	52.7	·	·	4	11.1	1	2.7	36
년계	·	·	1	2.0	5	10.2	1	2.0	4	8.1	3	6.1	26	53.0	1	2.0	7	14.2	1	2.0	49
3남	·	·	·	·	·	·	·	·	1	11.0	·	·	7	77.0	·	·	1	11.0	·	·	9
학여	1	2.7	·	·	2	5.4	·	·	2	5.4	1	2.7	28	75.0	·	·	1	2.7	2	5.4	37
년계	1	2.1	·	·	2	4.3	·	·	3	6.5	1	2.1	35	76.0	·	·	2	4.3	2	4.3	46
총계	2	1.3	1	0.6	10	6.0	1	0.6	16	10.5	6	3.9	95	62.9	2	1.3	14	9.2	4	2.6	151

6) 父母의 職業

父母의 職業을 파악하기 위해 無職을 포함하여 13개의 職業群으로 나누어 調査하였는데 全無한 정치가, 법률가, 의료인, 종교인, 군인등을 제외하여 9개 직업군의 分布는 <표 10>과 같다.

農業·漁業이 58.9%로 과반수를 훨씬 넘었고, 商業 및 서비스業 15.8%, 일반공무원 5.9%, 무직 5.2%였으며, 教育者와 금융·회사원 및 기타에서는 3.9%이었는데, 사업가와 공업·건설업은 극히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7) 父母에 대한 生覺

父母의 態度에 대하여 學生들이 生覺하는 것을 <표 11>에서 보면 보수적이고 권위적 반응(매우 보수적·권위적 + 약간 보수적·권위적)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 41.1%이었으나, 民主的(民主的 + 매우 民主的)이라고 生覺하고 있는 學生은 16.5%에 불

< 표 10 > 부모의 직업

구분 \ 항목	농업·어업		공업·건설업		상업·서비스업		금융·회사원		일반공무원		교육자		사업가		무직		기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남	14	87.0	·	·	1	6.3	·	·	1	6.3	·	·	·	·	·	·	·	·	16
학 여	20	50.0	·	·	10	25.0	1	2.5	3	7.5	3	7.5	1	2.5	1	2.5	1	2.5	40
년 계	34	60.0	·	·	11	19.6	1	1.7	4	7.1	3	5.3	1	1.7	1	1.7	1	1.7	56
2 남	11	84.6	·	·	·	·	·	·	·	·	·	·	·	1	7.6	1	7.6	13	
학 여	22	61.0	·	·	5	13.0	·	·	4	11.0	2	5.5	1	2.7	·	·	2	5.5	36
년 계	33	67.0	·	·	5	10.0	·	·	4	8.1	2	4.0	1	2.0	1	2.0	3	6.1	49
3 남	6	66.0	·	·	1	11.0	1	11.0	·	·	·	·	·	·	·	·	1	11.0	9
학 여	16	43.0	1	2.7	7	18.9	4	10.8	1	2.7	1	2.7	·	·	6	16.2	1	2.7	37
년 계	22	47.8	1	2.2	8	17.3	5	10.8	1	2.2	1	2.2	·	·	6	13.0	2	4.3	46
총계	89	58.9	1	0.7	24	15.8	6	3.9	9	5.9	6	3.9	2	1.3	8	5.2	6	3.9	151

< 표 11 > 부모에 대한 생각

구분	항목	매우 보수적·권위적		약간 보수적·권위적		보통		민주적		매우민주적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남	3	18.7	2	12.5	6	37.5	5	31.2	·	·	16	
학 여	3	7.3	14	34.1	17	41.4	6	14.6	1	2.4	41	
년 계	6	10.5	16	28.0	23	40.3	11	19.2	1	1.7	57	
2 남	1	7.6	5	38.4	2	15.3	·	·	·	·	13	
학 여	2	5.5	13	36.1	17	42.2	4	11.1	·	·	36	
년 계	3	6.1	18	36.7	22	44.8	6	12.2	·	·	49	
3 남	1	11.1	2	22.2	3	33.3	2	22.2	1	11.1	9	
학 여	6	16.6	12	33.3	14	38.8	4	11.1	·	·	36	
년 계	7	15.5	14	31.1	17	37.7	6	13.3	1	2.2	45	
총계	16	10.6	48	31.8	62	41.1	23	15.2	2	1.3	151	

과하였다. 이러한 分布는 < 표 10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農業·漁業이 절대다수인 父母의 職業에서 農漁村 地域의 保守的인 雰圍氣가 도시의 경우보다도 많이 남아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8) 家庭의 雰圍氣

< 표 12 >는 學生들의 家庭이 어느 程度 和睦한가를 調查한 結果로서 자기의 家庭이 和睦하다 (매우 화목 + 다소 화목)라는 反應을 보인 學生은 54.8%로써 높은 分布比率를 보였고, 이 中에서 女學生들의 家庭이 男學生들의 家庭보다 더욱 和睦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女學生의 家庭經濟 水準이 男學生들의 경우보다 높은 가담이 아닌가 生覺되었다. 또한 普通이라고 認知하는 學生은 32.4%로서 低學年으로 갈수록 그리고 男學生에서 높은 反

應을 보였다. 이에 반하여 否定的으로 認知하는 不和(다소 不和 + 매우 不和)는 11.8%였다. 따라서 대다수 학생들의 家庭靑圍氣는 寬만한 것으로 評價되었다.

< 표 12 > 가정 분위 기

구분	항목	매우화목		다소화목		보 통		다소불화		매우불화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2	12.5	3	18.7	10	62.5	1	6.2	·	·	·	·	16	
	여	8	20.0	11	27.5	15	37.5	5	12.5	·	·	1	2.5		40
	계	10	17.8	14	25.0	25	44.6	6	10.7	·	·	1	1.7		
2 학 년	남	·	·	6	46.1	5	38.4	2	15.3	·	·	·	·	13	
	여	6	19.4	19	52.7	7	19.3	2	5.5	1	2.7	·	·		36
	계	7	14.2	25	51.0	12	34.4	4	8.1	1	2.0	·	·		
3 학 년	남	1	11.1	3	33.3	3	33.3	1	11.1	1	11.1	·	·	9	
	여	9	24.3	14	37.8	9	21.6	5	13.5	·	·	·	·		37
	계	10	21.7	17	36.9	12	26.0	6	13.0	1	2.1	·	·		
총계		27	17.8	56	37.0	49	32.4	16	10.5	2	1.3	1	0.6	151	

3. 經濟與件

1) 家庭의 經濟形便

< 표 13 >은 學生들의 家庭經濟形便을 主觀的으로 評價토록 한 結果이다. 全體的으로 볼 때 과반수에 거의 해당되는 49.6%가 普通이라고 응답하였고, 곤란하거나 매우 곤란이 44.2%, 비교적 여유가 5.9%이었으며, 매우 여유있는 家庭은 한명도 없는 것을 볼 때 家庭經濟事情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곤란하거나 매우 곤란한 학생을 학년별, 남녀별로

< 표 13 > 가정의 경제형편

구분	항목	매우곤란		곤란		보 통		비교적여유		매우여유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	6.2	6	37.5	8	50.0	1	6.2	·	·	16	
	여	3	7.5	10	25.0	25	62.5	2	5.0	·	·		40
	계	4	7.1	16	28.5	33	58.9	3	5.3	·	·		
2 학 년	남	1	7.6	9	69.2	3	23.0	·	·	·	·	13	
	여	2	5.5	12	33.3	20	55.5	2	5.5	·	·		36
	계	3	6.1	21	42.8	23	46.9	2	4.0	·	·		
3 학 년	남	2	22.2	3	33.3	3	33.3	1	11.1	·	·	9	
	여	5	13.5	13	35.1	16	43.2	3	8.1	·	·		37
	계	7	15.2	16	34.7	19	41.3	4	8.6	·	·		
총계		14	9.2	53	35.0	75	49.6	9	5.9	·	·	151	

보면 1학년 35.6%, 2학년 48.9%, 3학년 49.9%로 學年이 높아짐에 따라 곤란한 家庭이 더욱 增加되었고 女學生보다는 男學生의 家庭이 더욱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學費調達方法

學生들의 學費調達方法에 대한 調査結果는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父母(86.7%)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제한테서 받는 학생이 3%로서 父母와 兄弟에게서 學費를 解決하는 學生이 90%나 되었다. 그런데 용자 및 차용(4.6%)과 부업(3.9%)에 의해 학비를 조달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의 학생은 8.5%나 되었다.

<표 14> 학비 조달 방법

구분	항목	부 모		형 제		친 척		부 업		용자및차용		장학금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5	93.7	·	·	·	·	·	·	1	6.2	·	·	16
	여	36	90.0	1	2.5	·	·	1	2.5	2	5.0	·	·	40
	계	51	91.0	1	1.7	·	·	1	1.7	3	5.3	·	·	56
2 학 년	남	12	92.3	1	7.6	·	·	·	·	·	·	·	·	13
	여	32	89.0	2	5.5	·	·	1	2.7	1	2.7	·	·	36
	계	44	90.0	3	6.1	·	·	1	2.0	1	2.0	·	·	49
3 학 년	남	7	78.0	·	·	·	·	1	11.1	1	11.1	·	·	9
	여	29	78.3	1	2.7	1	2.7	3	8.0	2	5.4	1	2.7	37
	계	36	78.1	1	2.1	1	2.1	4	9.0	3	6.5	1	2.1	46
총 계		131	86.7	5	3.3	1	0.6	6	3.9	7	4.6	1	0.6	151

3) 學費調達事情

<표 15>에서 學生들의 學費調達에 대한 心的負擔의 程度를 分析하여 보면 45%의 學生

<표 15> 학비 조달 사정

구분	항목	아주곤란		다소곤란		보 통		다소어유있다		충 분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	6.2	6	37.5	9	56.2	·	·	·	·	·	·	16
	여	3	7.5	12	30.0	20	50.0	2	7.5	3	7.5	·	·	40
	계	4	7.1	18	32.1	29	51.7	2	3.5	3	5.3	·	·	56
2 학 년	남	1	7.6	4	30.7	6	46.1	1	7.6	1	7.6	·	·	13
	여	4	11.1	9	25.0	15	41.6	7	19.4	1	2.7	·	·	36
	계	5	10.2	13	26.5	21	42.8	8	16.3	2	4.0	·	·	49
3 학 년	남	2	22.2	3	33.3	3	33.3	1	11.1	·	·	·	·	9
	여	5	13.5	14	37.8	15	40.5	3	8.1	·	·	·	·	37
	계	7	15.2	17	36.9	18	39.2	4	8.6	·	·	·	·	46
총 계		16	10.5	48	31.7	68	45.0	14	9.2	5	3.3	·	·	151

이 普通이었고 곤란(아주 곤란 + 다소 곤란)한 학생도 이와 거의 비슷한 水準인 42.2%나 되었는데, 여유가 있는 경우는 9.2%였으며, 充分은 3.3%밖에 되지 않았다. 학년별 곤란한 학생의 分布를 보면 1학년(39.2%)이나 2학년(36.7%)에 비해 3학년(52.2%)이 더욱 곤란하였으며, 男女別로는 女學生보다 男學生들의 學費調達에 대한 곤란도가 높았다. 이러한 結果는 經濟的인 面에서 心理的인 負擔感이 없는 安定된 券圍氣속에서 學業을 遂行할 수 있는 學生의 數는 몇명 되지 않고 一般的으로 家庭經濟 水準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용돈 水準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돈으로 월평균 1 만원을 쓰고 있는 학생이 38.9%로 가장 많았고, 1 ~ 2 만원 25.8%, 2 ~ 3 만원 15.8%, 3 ~ 4 만원 7.2%, 4 ~ 5 만원 5.9%, 5 만원 이상 2.6%였다. 이러한 結果는 부산여대(부산여대 학생생활연구소, 1986)의 경우 2 ~ 3 만원 쓰는 學生(29.5%)이 가장 많은 分布를 나타내었다는 것과 比較해 보면 本校 學生들(2만원까지 64.7%)이 용돈을 훨씬 덜 쓰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원이하를 쓰는 學生을 學年別로 보면 1학년 48.9%, 2학년 36.7%, 3학년 27.5%이었고, 남녀별로는 20.3%, 43.9%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일수록 용돈을 덜 쓰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월 5 만원이상 쓰는 사람도 2.6%나 되어 용돈액수에 있어서 상당히 差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용 돈 수 준

구분	항목		삼천~오천원		육천~만원		만원~만오천		만육천~이만		이만천~삼만		삼만천~사만		사만천~오만		오만원이상		무반응		계		
	남	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1 학 년	남	5	31.2	1	6.0	2	12.5	2	12.5	4	25.0	·	·	·	·	·	·	·	·	·	2	12.5	16
	여	10	25.0	12	30.0	4	10.0	5	12.5	6	15.0	2	5.0	·	·	·	·	·	·	·	1	2.5	40
	계	15	26.7	13	23.2	6	10.7	7	12.5	10	17.8	2	3.5	·	·	·	·	·	·	·	3	5.3	56
2 학 년	남	2	15.3	1	7.6	1	7.6	2	15.3	1	7.6	2	15.3	2	15.3	2	15.3	·	·	·	·	·	13
	여	6	16.6	9	25.0	4	11.1	4	11.1	8	22.2	2	5.5	2	5.5	·	·	·	·	·	1	2.7	36
	계	8	16.3	10	20.4	5	10.2	6	12.2	9	18.3	4	8.1	4	8.1	2	4.0	1	2.0	·	·	1	49
3 학 년	남	·	·	·	·	2	22.2	1	11.1	·	·	2	22.2	3	33.3	1	11.1	·	·	·	·	·	9
	여	4	10.8	9	24.3	5	13.5	7	18.9	5	13.5	3	8.1	2	5.4	1	2.7	1	2.7	1	2.7	1	37
	계	4	8.0	9	19.5	7	15.2	8	17.3	5	10.8	5	10.8	5	10.8	2	4.3	1	2.1	·	·	1	46
총 계	27	17.8	32	21.1	18	11.9	21	13.9	24	15.8	11	7.2	9	5.9	4	2.6	5	3.3	·	·	5	151	

5) 副職 希望與否

副職(아르바이트) 希望與否를 묻는 調查結果는 <표 17>에서와 같이 원하는 學生(62.

<표 17> 부 직 회 망 여 부

구분	항목	원 한 다		그저 그렇다		필 요 없 다		계 명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7	43.7	8	50.0	1	6.2	16
	여	29	72.5	7	17.5	4	10.0	40
	계	36	64.2	15	26.7	5	8.9	56
2 학 년	남	9	69.2	3	23.0	1	7.6	13
	여	18	50.0	12	33.3	6	16.6	36
	계	27	55.1	15	30.6	7	14.2	49
3 학 년	남	7	77.7	1	11.1	1	11.1	9
	여	25	67.5	8	21.6	4	10.8	37
	계	32	69.5	9	19.5	5	10.8	46
총 계		95	62.9	39	25.8	17	11.2	151

9%)이 절대다수이고, 그저 그렇다(25.8%), 필요없다(11.2%)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및 남녀별로는 특이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副職 希望理由

副職 希望理由 <표 18>는 용돈調達(38.4%)과 學費調達(23.8%)등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6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社會經驗(19.8%), 對人關係(7.2%)의 順으로 應答하였다. 學費調達을 원는 學生의 경우 1, 2, 3학년 각각 16%, 24.4%, 32.6%로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용돈이나 학비를 해결해 보려는 학생들이 많았다.

<표 18> 부 직 회 망 이 유

구분	항목	학비조달		용돈조달		사회경험		대인관계		봉 사 무 반 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3	18.7	7	43.7	4	25.0	1	6.2	·	·	1	6.2	16
	여	6	15.0	13	32.5	15	37.5	3	7.5	·	·	3	7.5	40
	계	9	16.0	20	35.7	19	33.9	4	7.1	·	·	4	7.1	56
2 학 년	남	6	46.1	4	30.7	1	7.6	·	·	·	·	2	15.3	13
	여	6	16.1	16	44.4	5	13.8	6	16.6	·	·	3	8.3	36
	계	12	24.4	20	40.8	6	12.2	6	12.2	·	·	5	10.2	49
3 학 년	남	·	·	4	44.4	3	33.3	·	·	·	·	2	22.2	9
	여	15	40.5	14	37.8	2	5.3	1	2.7	1	2.7	4	10.8	37
	계	15	32.6	18	39.1	5	10.8	1	2.1	1	2.1	6	13.0	46
총계		36	23.8	58	38.4	30	19.8	11	7.2	1	0.6	15	9.9	151

4. 本校志望과 深化課程(科) 選擇

1) 本 大學에 志願한 動機

本校를 志願하게 된 主된 動機로는 <표 19>에서 나타나듯이 45.7%의 많은 學生들이 부모의 권유때문이라고 대답했고, 취직(17.2%), 경제(14.6%)때문 등 3項目에서 77.5%의 學生들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家庭環境에서 卒業後 취직을 위한 부모님들의 권유가 크게 作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父母가 願해서 大學에 進學한 학생비율을 서울敎大(姜駿模, 1987)의 5.21%와 本 調査 45.7%를 比較하면 너무나 현저한 差異를 보여 本校 學生들의 경우에 어려운 家庭環境으로 就職을 원하는 부모님들의 心情을 잘 理解하는 것으로 思料되었다. 그러나 교직에 대한 使命感을 가지고 本 大學에 들어온 學生은 불과 11.9%밖에 되지 않았는데, 1학년(10.7%), 2학년(8.2%)보다 3학년에서는 使命感 比率(17.4%)이 훨씬 높아졌음을 볼 때 入學後 教育에 의해 달라졌음을 의미하기도 하나 앞으로 學生들을 學校教育에 의해 教育에 대한 使命感을 가질 수 있도록 積極적인 指導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19> 본 대학에 지원한 동기

항목 구분	사명감 명	취 직		실 려		경 제		부모권유		친구권유		선생님권유		기 타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남	1	6.25	·	·	·	3	18.8	10	62.5	1	6.3	·	·	1	6.3	·	·	16	
학 여	5	12.5	8	20	·	5	12.5	17	42.5	1	2.5	2	5	1	2.5	1	2.5	40	
년 계	6	10.7	8	14.3	·	8	14.3	27	48.3	2	3.6	2	3.6	2	3.6	1	1.8	56	
2 남	·	·	1	7.7	1	7.7	2	15.4	7	53.9	·	·	2	15.4	·	·	·	13	
학 여	4	11.1	8	22.2	·	6	16.7	15	41.7	·	·	2	5.6	1	2.8	·	·	36	
년 계	4	8.2	9	18.4	1	2.0	8	16.3	22	44.9	·	·	4	8.2	1	2.0	·	49	
3 남	2	22.2	·	·	1	11.1	1	11.1	5	55.6	·	·	·	·	·	·	·	9	
학 여	6	16.1	9	24.4	1	2.7	5	13.5	15	40.5	·	·	·	1	2.7	·	·	37	
년 계	8	17.4	9	19.6	2	4.4	6	13.0	20	43.5	·	·	·	1	2.1	·	·	467	
총 계	18	11.9	26	17.2	3	1.9	22	14.6	69	45.7	2	1.3	6	3.4	4	2.7	1	0.7	151

2) 本校 學生으로서의 矜持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本 大學의 入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매우 자랑스럽다 + 자랑스럽다)를 가지고 있는 學生比率은 55.7%였고, 부정적인 態度(불만족 + 대단히 불만족)인 학생이 5.9%로 나타났다. 그런데 '그저 그렇다'(38.4%)라고 소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해석하여 이를 포함시킨다면 全體의 94.1%가 되므로 大部分 本 濟州教育大學 學生으로서의 矜持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20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금지

구분	항목	매우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저그렇다		불만족		대단히불만족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3	18.6	5	31.6	7	43.8	1	6.3	·	·	16
	여	8	20.0	22	55.0	9	22.5	1	2.5	·	·	
	계	11	19.6	27	48.2	16	28.6	2	3.6	·	·	
2 학 년	남	2	15.4	4	30.8	6	46.2	1	7.7	·	·	13
	여	1	2.8	15	41.7	18	50.0	2	5.6	·	·	
	계	3	6.1	19	38.8	24	49.0	3	6.1	·	·	
3 학 년	남	4	44.4	2	22.2	3	33.3	·	·	·	·	9
	여	2	5.4	16	43.2	15	40.5	2	5.4	2	5.4	
	계	6	13.0	18	39.1	18	39.1	2	4.4	2	4.4	
총 계		20	13.3	64	42.4	58	38.4	7	4.6	2	1.3	151

3) 敎職에 대한 見解

< 표 21 >은 敎職에 대한 見解를 分析한 結果로서 2.7%의 극소수 學生만이 그저 그런 職業이라고 하였을 뿐 96.7%의 거의 全 學生들이 肯定的인 評價(보람있는 職業 + 해볼만한 職業)를 하였는데, 이러한 反應은 학년별, 남녀별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났다.

< 표 21 > 교직에 대한 견해

구분	항목	보람있는직업		해볼만한직업		그저그런직업		관심없다		무 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7	43.8	8	50.0	1	6.3	·	·	·	·	16
	여	28	70.0	12	30.0	·	·	·	·	·	·	
	계	35	62.5	20	35.8	1	1.8	·	·	·	·	
2 학 년	남	4	30.8	7	53.9	1	7.7	·	·	1	7.7	13
	여	18	50.0	17	47.2	1	2.8	·	·	·	·	
	계	22	44.9	24	49.0	2	4.2	·	·	1	2.0	
3 학 년	남	7	77.8	2	22.2	·	·	·	·	·	·	9
	여	21	56.8	15	40.5	1	2.7	·	·	·	·	
	계	28	60.9	17	37.0	1	2.1	·	·	·	·	
총 계		85	56.3	61	40.4	4	2.7	·	·	1	0.6	151

4) 深化課程 選擇要因

2, 3 학년을 對象으로 調査한 現在の 深化課程(學科)을 選擇하게 된 要因을 < 표 22 >에서 分析해 보면 전공하고 싶어서 選擇한 學生이 41.1%로 가장 많았고, 科目이 좋아서라는 경우도 3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그외의 項目에는 1~2명씩 극히 낮은 水準이 었다.

< 표 22 > 심화과정 선택요인

구분	항목	전공하고싶어		친구선택권유		과목이좋아서		담당교수좋아서		적당한과목이없어		막연히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학년	남	6	46.2	·	·	4	30.8	·	·	1	7.7	1	7.7	1	7.7	13
	여	15	41.7	·	·	16	44.4	2	5.6	2	5.6	·	·	1	2.8	36
	계	21	42.9	·	·	20	40.8	2	4.1	3	6.1	1	2.0	2	4.1	49
3학년	남	3	33.3	2	22.2	3	33.3	·	·	1	11.1	·	·	·	·	9
	여	15	40.5	2	5.4	10	27.0	·	·	4	10.8	5	13.5	1	2.7	37
	계	18	28.3	4	8.7	13	28.3	·	·	5	10.9	5	10.9	1	2.2	46
총계		39	41.1	4	4.2	33	34.7	2	2.1	8	8.4	6	6.3	3	3.2	95

5) 深化課程의 滿足度

學生 本人이 選擇한 深化課程(學科)을 어느 程度 滿足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 표 23 >를 보면 滿足(대단히 만족 +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45.3%, 보통 21.1%로서 이들 학생까지 긍정적 반응이라고 해석하면 66.4%로 많은 비율이긴 하나 불만(다소 불만 + 대단히 불만)이 29.4%로서 의외로 좀 많은 편이었다. 불만이라는 반응이 이처럼 많은 것은 深化課程 選擇時 確固한 信念을 갖고 選擇하지 않은데서 오는 結果라고 生覺되었다.

< 표 23 > 심화과정의 만족도

구분	항목	대단히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		대단히불만족		잘모르겠다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2학년	남	4	30.8	3	23.1	3	23.1	1	7.7	·	·	1	7.7	1	7.7	13
	여	4	11.1	13	36.1	8	22.2	7	19.4	2	5.7	1	2.8	1	2.8	36
	계	8	16.3	16	32.7	11	22.5	8	16.3	2	4.1	2	4.1	2	4.1	49
3학년	남	2	22.2	3	33.3	1	11.1	2	22.2	1	11.1	·	·	·	·	9
	여	4	10.8	10	27.0	8	21.6	8	21.6	7	18.9	·	·	·	·	37
	계	6	13.0	13	28.3	9	19.6	10	21.7	8	17.4	·	·	·	·	46
총계		14	14.8	29	30.5	20	21.1	18	18.9	10	10.5	2	2.1	2	2.1	95

6) 深化課程 轉科 希望與否

深化課程을 他科로 轉科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轉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힌 학생은 < 표 2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63.1%로 높게 반응하였지만 31.6%나 되는 학생들이 轉科를 하고 싶다고 應答하였다. 轉科를 願하는 학생을 학년별로 보면 2학년 26.

5%, 3학년 36.9%로서 2학년 때 深化課程 科目을 1, 2학기 동안 이수해 본 결과 3학년이 되어서는 轉科를 希望하는 學生이 더욱 增加되었고, 男女別로는 2학년 15.3%, 30.6%, 3학년 22.2%, 40.5%로서 男學生보다 女學生의 경우 轉科를 더욱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학기초~4月中旬에 實施하고 있는 深化課程의 分班時期를 다소 늦추어 充分한 검토와 指導를 하면서 1학기 정도 지난 후 選擇될 수 있게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 生覺되었다.

<표 24> 심화과정 전과희망 여부

구분	항목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2학년	남	2	15.3	9	69.3	2	15.4	13
	여	11	30.6	23	63.9	2	5.6	36
	계	13	26.5	32	65.3	4	8.2	49
3학년	남	2	22.2	6	66.7	1	11.1	9
	여	15	40.5	22	59.4	·	·	37
	계	17	36.9	28	60.9	1	2.1	46
총 계		30	31.6	65	63.1	5	5.3	95

5. 大學生活에 대한 態度와 關心事項

1) 高校時節 大學入學後 가장 바랬던 點

高等學校 時節에 生覺했던 것으로서 大學入學 後 가장 바랬던 點을 <표 25>에서 보면

<표 25> 고교시절에 대입입학후 가장 바랬던 점

구분	항목	교과교육		인간적대우		자연스럽		취미생활		스포츠		기 타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1	6.3	2	12.5	7	43.8	5	31.3	·	·	1	6.3	·	·	16
	여	1	2.5	2	5.0	8	20.0	27	67.5	2	5.0	·	·	·	·	40
	계	2	3.6	4	7.1	15	26.8	32	57.1	2	3.6	1	1.8	·	·	56
2학년	남	·	·	·	·	4	30.8	8	61.5	1	7.7	·	·	·	·	13
	여	2	5.6	5	13.9	15	41.7	12	33.3	1	2.8	1	2.8	·	·	36
	계	2	4.0	5	10.2	19	38.8	20	40.8	2	4.0	1	2.0	·	·	49
3학년	남	1	11.1	·	·	3	33.3	3	33.3	·	·	2	22.2	·	·	9
	여	6	16.2	5	13.5	9	24.3	10	27.0	·	·	3	8.1	4	10.8	37
	계	7	15.2	5	10.9	12	26.1	13	28.3	·	·	5	10.9	4	8.7	46
총 계		11	7.3	14	9.3	46	30.5	65	43.1	4	2.7	7	4.6	4	2.7	151

인간적 대우(9.3%)나 교과교육(7.3%)에 比하여 취미生活(43.1%)과 자연스럼(30.5%)이 絶對多數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反應은 고등학교 시절 大學入學學力考査 준비로 언제나 긴장된 狀態에서 大學이라는 곳의 憧憬과 더불어 취미生活이나 자연스러움과 같은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했었음을 잘 나타내었다. 趣味生活과 教科教育에서 볼 때 趣味生活이 1학년 57.1%, 2학년 40.8%, 3학년 28.3%로 일단 대학에 入學한 後 학년이 더해짐에 따라 高校時節에 憧憬했던 것들이 점차 減少되어 3학년이 되면 1학년 때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減少되었고 오히려 教科教育이 增加되었다.

2) 大學生活中 가장 經驗하고 싶은 것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生活中 가장 經驗하고 싶은 것으로서는 學問的 研究(33.4%)를 우선적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친구교제(18.9%), 취미활동(16.9%), 씨클活動(16.6%), 異性交際(7%)의 順으로 應答하였다. 전체적으로 52.3%의 학생이 學問的 探究와 친구교제를 지적하였는데, 特히 高學年으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男學生보다는 女學生일수록 學問的 探究를 더욱 지적하였다.

<표 26> 대학생활동중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

구분	항목	학문적탐구		이성교제		친구교제		씨클활동		취미활동		기 타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6	18.8	6	18.8	5	15.6	4	12.5	4	12.5	1	3.1	6	18.8	32
	여	23	28.8	1	1.3	16	20.0	16	20.0	28	22.5	·	·	6	7.5	80
	계	29	25.9	7	6.3	21	18.8	20	17.9	22	19.6	1	0.9	12	10.7	1122
2 학 년	남	8	30.7	2	7.7	7	26.9	4	15.4	4	15.4	1	3.9	·	·	26
	여	27	37.5	5	6.9	14	19.4	7	9.7	15	20.8	·	·	4	5.6	72
	계	35	35.7	7	7.1	21	21.4	11	11.2	19	19.4	1	1.0	4	4.1	98
3 학 년	남	5	27.8	5	27.8	3	16.7	2	11.1	3	16.7	·	·	·	·	18
	여	32	43.2	2	2.7	12	20.3	17	23.0	7	9.5	·	·	4	5.4	74
	계	37	40.2	7	7.6	15	16.3	19	20.7	10	10.9	·	·	4	4.4	92
총 계		101	33.4	21	7.0	57	18.9	50	16.6	51	16.9	2	0.7	20	6.6	302

3) 希望 씨클活動

大學教育에 있어서 정규교육이외의 씨클活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따라서 씨클活動에 대한 指導對策의 必要性은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本 大學에서는 2개의 씨클活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大學生活中 學生들이 希望하는 씨클活動 2가지만 選擇하게 하였는데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教養·學術이 2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藝術(16.2%), 친목·오락(13.6%), 체육(10.6%), 봉사(8.6%)의 順이었는데, 이념(6.

6%)은 무반응보다도 낮은 最下位였다. 2 학기때부터 公式的으로 씨클活動이 허용되는 1 학년의 경우 무반응이 9%로서 91%가 씨클活動을 願했고, 2 학년 93.9%, 3 학년 91.4%나 되는 絶對多數의 學生들이 씨클活動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었다.

< 표 27 > 희망씨클 활동

구분	항목	교양학술		예 술		체 육		종 교		봉 사		친목오락		이·년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년	남	2	6.3	2	6.3	10	31.3	1	3.1	3	9.3	6	18.8	·	·	8	25.0	32
	여	25	31.3	12	7.5	6	7.5	8	10.0	8	10.0	15	18.8	4	5.0	2	2.5	80
	계	27	24.1	14	12.5	16	14.3	9	8.0	11	9.8	21	18.8	4	3.6	10	9.0	112
2 학년	남	6	23.1	6	23.1	2	7.7	1	3.9	1	3.9	4	15.4	5	19.2	1	3.9	26
	여	22	30.6	14	19.4	8	11.1	6	8.3	7	9.8	7	9.8	3	4.2	5	7.0	72
	계	28	28.6	20	20.4	10	10.2	7	7.1	8	8.2	11	11.2	8	8.2	6	6.1	98
3 학년	남	5	27.8	4	22.2	3	16.7	2	11.1	·	·	3	16.7	1	5.6	·	·	18
	여	26	35.1	11	14.9	3	4.1	6	8.1	7	9.5	6	8.1	7	9.5	8	10.8	74
	계	31	33.7	15	16.3	6	6.5	8	8.7	7	7.6	9	9.8	8	8.7	8	8.6	92
총 계		86	28.5	49	16.2	32	10.6	24	7.9	26	8.6	41	13.6	20	6.6	24	7.9	302

4) 大學 卒業後 進路計劃

大學을 卒業한 後의 進路計劃을 묻는 調查에서는 < 표 28 >에 나타난 바와 같이 72.2%나 되는 大多數의 學生들이 敎職이라고 應答하였고, 그 다음으로 大學院 進學(22.5%)이라고 했다. 남녀별로 보면 1, 2 학년의 경우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敎職을 원하는 學生이 많았으나, 3 학년의 경우엔 低學年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으로 男學生의 敎職比率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런데 大學院은 1, 2 학년의 경우 女學生들이 男學生보다 더 원했으나 3 학년에 가

< 표 28 > 대학 졸업후의 진로계획

구분	항목	교 직		대학원		해외유학		사 업		기 타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년	남	14	87.5	2	12.5	·	·	·	·	·	·	·	·	16
	여	27	67.5	10	25.0	3	7.5	·	·	·	·	·	·	40
	계	41	73.2	12	21.4	3	5.3	·	·	·	·	·	·	56
2 학년	남	12	92.3	1	7.6	·	·	·	·	·	·	·	·	13
	여	24	66.6	10	27.7	1	2.7	·	·	1	2.7	·	·	36
	계	36	73.4	11	22.4	1	2.0	·	·	1	2.0	·	·	49
3 학년	남	4	44.4	3	33.3	·	·	·	·	2	22.2	·	·	9
	여	28	75.6	8	21.6	·	·	·	·	·	·	1	2.7	37
	계	32	69.5	11	23.9	·	·	·	·	2	4.3	1	2.1	46
총 계		109	72.2	34	22.5	4	2.6	·	·	3	2.0	1	0.7	151

서는 男學生들의 大學院 進學希望이 많았다.

5) 삶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표 29>에 보는 바와 같이 社會的 價値가 49.6%로 顯著하게 가장 높았고, 宗教的 價値(17.2%), 學問的 價値(15.8%)의 順이었는데, 經濟的 價値(3.9%)나 政治的 價値(0.6%)는 기타(6%)나 무반응(5.9%)보다도 더욱 낮은 反應을 보였다. 宗教的 價値를 男女別로 보면 男學生보다도 女學生이 훨씬 더 귀중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삶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구분	항목	사회적가치		학문적가치		경제적가치		종교적가치		정치적가치		기 타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0	62.5	2	12.5	1	6.2	1	6.2	·	·	1	6.2	1	6.2	16
	여	20	50.0	7	17.5	1	2.5	7	17.5	·	·	1	2.5	4	10.0	40
	계	30	53.5	9	16.0	2	3.5	8	14.2	·	·	2	3.5	5	8.9	56
2 학 년	남	7	53.8	5	38.4	1	7.6	·	·	·	·	·	·	·	·	13
	여	15	41.6	6	16.6	2	5.5	7	22.2	·	·	3	8.3	2	5.5	36
	계	22	44.8	11	22.4	3	6.1	8	16.3	·	·	3	6.1	2	4.0	49
3 학 년	남	4	44.4	1	11.1	·	·	1	11.1	1	11.1	2	22.2	·	·	9
	여	19	51.3	3	8.1	1	2.7	9	24.3	·	·	3	8.1	2	5.4	37
	계	23	50.0	4	8.6	1	2.1	10	21.7	1	2.1	5	10.8	2	4.3	46
총 계		75	49.6	24	15.8	6	3.9	26	17.2	1	0.6	10	6.0	9	5.9	151

6) 成功要因

<표 30>은 우리 社會에 있어서 成功하는데 필요한 要因이 무엇이나 하는 8 개의 項目을

<표 30> 성 공 요 인

구분	항목	실 령		학 별		가 문		재 령		권 령		대인관계		기 타		무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0	62.5	·	·	2	12.5	·	·	·	·	3	18.8	·	·	1	6.3	16
	여	24	60.0	1	2.5	·	·	·	·	·	·	13	32.5	1	2.5	2	5.0	40
	계	34	60.7	1	1.8	2	3.6	·	·	·	·	16	28.6	1	1.8	3	5.4	56
2 학 년	남	5	38.5	·	·	·	·	·	·	·	·	7	53.8	·	·	·	·	13
	여	21	58.3	2	5.6	1	2.8	·	·	·	·	12	33.3	·	·	·	·	36
	계	26	53.1	2	4.1	1	2.0	·	·	1	2.0	19	38.8	·	·	·	·	49
3 학 년	남	4	44.4	·	·	1	11.1	·	·	1	11.1	3	33.3	·	·	·	·	9
	여	12	32.4	2	5.4	·	·	1	2.7	1	2.7	16	28.6	·	·	5	43.2	37
	계	16	34.8	2	4.3	1	2.2	1	2.2	2	4.3	19	41.3	·	·	5	10.9	46
총계		76	50.3	5	3.3	4	2.6	1	0.7	3	2.0	54	35.8	1	0.7	8	5.3	151

分析한 結果이다. 實力이라고 應答한 學生이 절반수준(50.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對人關係(35.8%)이었는데 학벌(3.3%)이나 가문(2.6%), 권력(2%), 재력(0.7%)등은 극히 낮은 分布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86.1%)을 보인 實力과 對人關係에서 보면 低學年일수록 實力이라고 應答한 學生이 많았고, 高學年일수록 對人關係를 지적한 學生들이 많았다.

7) 學校에 대한 關心事項

大學生活中에서 學校에 대한 關心事項< 표 31 >은 학생단체써클(37.1%)과 전공(36.4%)이 가장 많은 分포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장학금(10.6%)이었으며, 교칙(6.6%), 기타(2.6%)등은 극히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학년별로 보면 학생단체써클 활동에 대한 關心度가 저학년일수록 높았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高學年일수록 더 높아졌으며, 또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전공에 더 관심을 보였다.

< 표 31 > 학교에 대한 관심사항

구분	항목	전공		학생단체써클		장학금		교칙		기타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4	25.0	9	56.3	2	12.5	1	6.3	·	·	·	·	16
	여	12	30.0	20	50.0	6	15.0	1	2.5	·	·	1	2.5	40
	계	16	26.8	29	51.8	8	14.3	2	3.6	·	·	1	1.8	56
2 학 년	남	2	15.4	6	46.2	·	·	2	15.4	1	7.7	2	15.4	13
	여	15	41.7	14	38.9	3	8.3	2	5.5	1	2.8	1	2.8	36
	계	17	34.7	20	40.8	3	6.1	4	8.2	2	4.1	3	6.1	49
3 학 년	남	3	33.3	1	11.1	2	22.2	2	22.2	1	11.1	·	·	9
	여	19	51.4	6	16.2	3	8.1	2	5.4	1	2.7	6	16.2	37
	계	22	47.8	7	15.2	5	10.9	4	8.7	2	4.3	6	13.0	46
총 계		55	36.4	56	37.1	16	10.6	10	6.6	4	2.6	10	6.6	151

8) 가장 큰 當面問題

學生들이 大學生活中에서 가장 큰 當面問題는 < 표 3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學業問題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經濟(13.9%)와 交友問題(13.2%)를 들었는데, 異性問題(6.6%)와 가정 및 건강등의 문제는 극히 낮은 分포였다. 그런데 3학년 남학생의 경우 33.3%가 學業과 기타 문제에 고민한다고 하였고, 교우, 가정, 경제문제등은 11.1%이었는데 異性和 健康問題는 전혀 없는 것으로 應答하였다.

9) 不安 解消方法

大學生活를 하면서 자신의 不安을 解消하는 方法에 대해 9개의 問項을 提示하여 調査한

< 표 32 > 가장 큰 당면 문제

구분	항목	학업		이성		교우		가정		진강		경제		기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9	56.3	1	6.3	1	6.3	·	·	2	12.5	2	12.5	1	6.3	16
	여	15	37.5	1	2.5	8	20.0	4	10.0	·	·	9	22.5	3	7.5	40
	계	24	42.9	2	3.6	9	16.1	4	7.1	2	3.6	11	19.7	4	7.1	56
2학년	남	3	23.1	3	23.1	2	15.4	1	7.7	1	7.7	1	7.7	2	15.4	13
	여	18	50.0	1	2.8	5	13.9	2	5.6	2	5.6	3	8.3	5	13.9	36
	계	21	42.9	4	8.2	7	14.3	3	6.1	3	6.1	4	8.2	7	14.3	49
3학년	남	3	33.3	·	·	1	11.1	1	11.1	·	·	1	11.1	3	33.3	9
	여	15	40.5	4	10.8	3	8.1	·	·	3	8.1	5	13.5	7	18.9	37
	계	18	39.1	4	8.7	4	8.7	1	2.2	3	6.5	6	13.0	10	21.7	46
총계		63	42.1	10	6.6	20	13.2	8	5.3	8	5.3	21	13.9	21	13.9	151

< 표 33 > 불안 해소법

구분	항목	상담		음악감상		독서		여행		산책		스포츠		술을마시		영화감상		기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5	31.3	2	12.5	1	6.3	·	·	1	6.3	5	31.3	·	·	·	·	2	12.5	16
	여	14	35.0	10	25.0	3	7.5	3	7.5	7	17.5	1	2.5	·	·	1	2.5	1	2.5	40
	계	19	33.9	12	21.4	4	7.1	3	5.4	8	14.3	6	10.7	·	·	1	1.8	3	5.4	56
2학년	남	3	23.1	4	30.8	·	·	·	·	1	7.7	2	15.4	·	·	2	15.4	1	7.7	13
	여	7	19.4	5	13.9	2	5.6	1	2.8	8	22.2	3	8.3	3	8.3	1	2.8	6	16.7	36
	계	10	20.4	9	18.4	2	4.1	1	2.0	9	18.4	5	10.2	3	6.1	3	6.1	7	14.3	49
3학년	남	·	·	1	11.1	·	·	1	11.1	1	11.1	4	44.4	2	22.2	·	·	·	·	9
	여	10	27.0	7	18.9	5	13.5	1	2.7	5	13.5	2	5.4	·	·	·	·	7	18.9	37
	계	10	21.7	8	17.4	5	10.9	2	4.3	6	13.0	6	13.0	2	4.3	·	·	7	15.2	46
총계		39	25.8	29	19.2	11	7.3	6	4.0	23	15.2	17	11.3	5	3.3	4	2.6	7	11.3	151

結果 < 표 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구나 知人과 相談한다는 경우가 25.8%로 가장 많았고,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19.2%, 조용한 산책 15.2%, 스포츠나 기타 11.3%의 順으로 응답하였는데, 독서(7.3%), 여행(4%), 영화감상(2.6%), 술을 마시는 학생(3.3%) 등은 몇사람 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不安을 해소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술을 마시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特히 1학년 남학생은 술을 마시므로서 不安을 해소하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10) 신뢰하는 相談者 有無

學生들에게 問題가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는 相談者의 有無를 調査한 結果< 표 34 > 33.8%가 '있다'는 反應을 보인 반면 60.9%의 학생이 신뢰하는 相談者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표 34〉 신뢰하는 상담자 유무

구분	항목	있 음		없 음		무 반응		계 명
		명	%	명	%	명	%	
1 학년	남	6	37.5	10	62.5	·	·	16
	여	11	27.5	26	65.0	3	7.5	40
	계	17	30.4	36	64.3	3	5.4	56
2 학년	남	5	38.5	8	61.5	·	·	13
	여	11	30.6	25	69.4	·	·	36
	계	16	32.7	33	67.3	·	·	49
3 학년	남	3	33.3	5	55.5	1	11.1	9
	여	15	40.5	18	48.6	4	10.8	37
	계	18	39.1	23	50.0	5	10.8	46
총 계		51	33.8	92	60.9	8	5.3	151

다. 학년별로는 1, 2 학년때에 상담자가 없는 학생비율이 많았다가 3 학년으로 올라가며 따라 그 비율이 減少하는 반면, 相談者가 있는 學生 比率은 1 학년 30.4%, 2 학년 32.7%, 3 학년 39.1%로 高學年으로 될수록 점차 높아지는 傾向이었다.

11) 자신의 問題를 相談하는 相對

〈표 35〉는 學生自身の 問題에 대하여 같이 의논하는 상대를 조사한 결과로서, 친구와 상담하는 경우가 38.4%로 가장 많았고,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도 21.2%로 많은 편이었으며, 부모는 13.2%로 낮은 비율이었는데, 형제자매, 교수, 이성친구, 학생지도연구소, 상

〈표 35〉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는 상대

항목 구분	부 모		형제자매		친 구		교 수		학생지도연구소		이성친구		상담기관		혼자서생각		종교인		기 타		계 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년	남	3	18.8	·	·	6	37.5	2	12.5	·	·	2	12.5	·	·	3	18.8	·	·	·	16	
	여	5	12.5	5	12.5	15	37.5	2	5.0	·	·	·	·	·	11	27.5	·	·	2	5.0	40	
	년계	8	14.3	5	8.9	21	37.5	4	7.1	·	·	2	3.6	·	·	14	25.0	·	·	2	3.6	56
2 학년	남	1	7.7	·	·	5	38.5	1	7.7	·	·	2	15.4	·	·	3	23.1	·	·	1	7.7	13
	여	1	2.8	2	5.6	17	47.2	1	2.8	2	5.6	1	2.8	2	5.6	8	22.2	1	2.8	1	2.8	36
	년계	2	4.1	2	4.1	22	44.9	2	4.1	2	4.1	3	6.1	2	4.1	11	22.4	1	2.0	2	4.1	49
3 학년	남	2	22.2	·	·	2	22.2	·	·	1	11.1	·	·	·	·	4	44.4	·	·	·	·	9
	여	8	21.6	2	5.4	13	35.1	2	5.4	2	5.4	1	2.7	·	·	3	8.1	1	2.7	5	13.5	37
	년계	10	21.7	2	4.3	15	32.6	2	4.3	3	6.5	1	2.2	·	·	7	15.2	1	2.2	5	10.9	46
총계		20	13.2	9	6.0	58	38.4	8	5.3	5	3.3	6	4.0	2	1.3	32	21.2	2	1.3	9	6.0	151

담기관등은 1.3~6.0%로서 극히 낮은 水準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친구보다도 혼자서 生覺(44.4%)하는 학생이 많았고, 여학생은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혼자서 생각하는 사람이 減少되어가는 特異한 正反對의 傾向을 보였다.

12) 學生指導研究所 相談教授와의 相談 希望

大學生活를 하면서 問題가 생겼을 때 學生指導研究所의 相談教授와 相談을 希望하는 學生分布는 <표 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는 學生이 2학년 51%, 3학년 58.4%, 신입생 80.4%, 전체적으로 64.2%로서 대단히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더욱이나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싶다는 학생도 7.3%나 되어 相談教授와의 相談을 긍정적(71.5%)로 生覺하고 있었다. 적극적으로 또는 기회있을 때 相談해 보고 싶다는 男學生은 2학년 69.2%였고, 1학년 93.8%나 되었는데, 3학년의 경우엔 100%로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36> 학생지도연구소 상담교수와의 상담 희망

구분	항목	적극적으로		기회있으면		필요 없다		모르겠다		무 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1	6.3	14	87.5	·	·	1	6.3	·	·	16
	여	4	10.0	31	77.5	·	·	4	10.0	1	2.5	40
	계	5	8.9	45	80.4	·	·	5	8.9	1	1.8	56
2 학 년	남	2	15.4	7	53.8	2	15.4	2	15.4	·	·	13
	여	1	2.8	18	50.0	4	11.1	13	36.1	·	·	36
	계	3	6.1	25	51.0	6	12.2	15	30.6	·	·	49
3 학 년	남	·	·	9	100.0	·	·	·	·	·	·	9
	여	3	8.1	18	48.6	6	16.2	6	16.2	4	10.8	37
	계	3	8.7	27	58.7	6	13.0	6	13.0	4	8.7	46
총 계		11	7.32	97	64.2	12	7.9	26	17.2	5	3.3	151

13) 特講에 대한 見解

特講에 대한 見解를 <표 37>에서 살펴보면 新入生の 경우 無反應이 39.3%로 가장 많고, 有益하다(28.6%), 그저 그렇다(25%), 필요없다(7.1%)의 順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 3학년의 경우엔 과반수 이상이 그저 그렇거나 필요없다고 하는 반면 유익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10.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2년전에 調査한(成周鉉, 1985)것(유익하다 62.4%, 그저 그렇다 32.8%)과 比較하면 ‘유익하다’는 응답이 크게 감소된 반면 ‘그저 그렇다’는 생각이 많아졌으며 필요없다는 見解도 增加되었다.

< 표 37 > 특강에 대한 견해

구분	항목	유익하다		그저그렇다		필요없다		무 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4	25.0	1	6.3	4	25.0	7	43.8	16
	여	12	32.5	13	32.5	·	·	15	37.5	40
	계	16	28.6	14	25.0	4	7.1	22	39.3	56
2학년	남	1	7.7	8	61.5	3	23.1	1	7.7	13
	여	4	11.1	22	61.1	9	25.0	1	2.8	36
	계	5	10.2	30	61.2	12	24.5	2	4.1	49
3학년	남	1	11.1	5	55.6	1	11.1	2	22.2	9
	여	4	10.8	19	51.4	7	18.9	7	18.9	37
	계	5	10.8	24	52.2	8	17.4	9	19.6	46
총	계	26	17.2	68	45.0	24	15.9	33	21.9	151

14) 願하는 特講內容

學生들이 願하는 特講의 內容< 표 38 >은 教養(29.8%)이 가장 많았고, 기타(15.9%), 컴퓨터와 전문적인 것(11.9%), 레저 스포츠(7.9%), 서예와 음악(6.6%), 꽃꽂이(6%), 茶道(3.3%)의 順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의 경우는 컴퓨터를, 3학년 학생은 전문적인 것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2년전 조사와 비교할 때 1학년 남학생이 54.5%나 많이 원했던 레저 스포츠는 단 1명도 원하지 않았다.

< 표 38 > 원하는 특강내용

구분	항목	교양		전문적인것		어학		컴퓨터		꽃꽂이		서예		다도		레저스포츠		기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학년	남	3	18.8	1	6.2	1	6.2	4	25.0	·	·	1	6.2	·	·	·	·	6	37.5	16
	여	10	25.0	1	2.5	2	5.0	9	22.5	2	5.0	4	10.0	3	7.5	4	10.0	5	12.5	40
	계	13	23.2	2	3.6	3	5.4	13	23.2	2	3.6	5	8.9	3	5.4	4	7.1	11	19.6	56
2학년	남	2	15.4	3	23.1	·	·	3	23.1	·	·	2	15.4	·	·	3	23.1	·	·	13
	여	15	41.7	1	2.8	5	13.9	2	5.6	5	13.9	1	2.8	·	·	4	11.1	3	8.3	36
	계	17	34.7	4	8.2	5	10.2	5	10.2	5	10.2	3	6.1	·	·	7	14.3	3	6.1	49
3학년	남	4	44.4	2	22.2	1	11.1	·	·	·	·	·	·	·	·	·	·	2	22.2	9
	여	11	29.7	10	27.0	1	2.7	·	·	2	5.4	2	5.4	2	5.4	1	2.7	8	21.6	37
	계	15	32.6	12	26.1	2	4.3	·	·	2	4.3	2	4.3	2	4.3	1	2.2	10	21.7	46
총	계	45	29.8	18	11.9	10	6.6	18	11.9	9	6.0	10	6.6	5	3.3	12	7.9	24	15.9	151

15) 特講 希望時間

特講을 할 경우에 1학기당 몇 시간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 질문에 대하여 <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5시간(9.3%)이나 20시간(4.6%)을 원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수시로 많이(23.8%)와 10시간(23.2%)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비교적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 표 39 > 특강 희망 시간

구분	항목	5시간		10시간		15시간		20시간		수시로많이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3	18.6	3	18.6	·	·	1	6.3	4	25.0	5	31.3	16
	여	5	12.5	7	17.5	4	10.0	2	5.0	12	30.0	10	25.0	40
	계	8	14.3	10	17.9	4	7.1	3	5.4	16	28.6	15	26.8	56
2 학 년	남	2	15.4	2	15.4	1	7.2	1	7.7	5	38.4	2	15.4	13
	여	7	19.4	12	33.3	5	13.8	1	2.8	8	19.4	3	8.3	36
	계	9	18.4	14	28.6	6	12.2	2	4.1	13	26.5	5	10.2	49
3 학 년	남	3	33.3	2	22.2	·	·	·	·	3	33.3	1	11.1	9
	여	9	24.3	9	24.3	4	10.8	2	5.4	4	10.8	9	24.3	37
	계	12	26.0	11	23.9	4	8.7	2	4.3	7	15.2	10	21.7	46
총	계	29	19.2	35	23.2	14	9.3	7	4.6	36	23.8	30	19.9	151

16) 本 大學의 施設 및 環境

< 표 40 >은 本 大學의 施設이나 環境條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調査한 것으로서 31.1%가 '그저 그렇다'고 하였고, 4.5%가 긍정적(매우 좋다 + 좋다)으로 대답하였는데, 58.9%의 많은 學生이 부정적(좋지 않다 + 매우 좋지 않다)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1, 2학년 남학생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었다.

< 표 40 > 본 대학의 시설 및 환경

구분	항목	매우좋다		좋다		그저그렇다		좋지않다		매우좋지않다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	·	·	·	5	31.2	7	43.8	2	12.5	2	12.5	16
	여	·	·	2	5.0	24	60.0	7	17.5	3	7.5	4	10.0	40
	계	·	·	2	3.6	29	51.8	14	25.0	5	8.9	6	10.7	56
2 학 년	남	·	·	·	·	2	15.4	6	46.1	5	38.5	·	·	13
	여	·	·	2	5.6	4	11.1	20	55.6	10	27.8	·	·	36
	계	·	·	2	4.1	6	12.2	26	53.1	15	30.6	·	·	49
3 학 년	남	1	11.1	2	22.2	5	55.6	1	11.1	·	·	·	·	9
	여	·	·	·	·	7	18.9	17	45.9	11	29.7	2	5.4	37
	계	1	2.2	2	4.3	12	26.1	18	39.1	11	23.9	2	4.3	46
총	계	1	0.7	6	3.8	47	31.1	58	38.4	31	20.5	8	5.3	151

6. 異性 및 結婚觀

1) 異性交際 與否

學生들이 大學生活를 하면서 現在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지의 與否를 조사한 결과 <표 41>를 보면,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50.3%로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在學時節에 하겠다는 학생이 22.5%였으며, 현재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학생은 14.5%나 되었는데, 졸업후에 하거나 또는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4%내외로 나타났다.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中에서는 1학년 여학생이 70%로 가장 많았고, 交際中인 학생들은 남녀 모두 高學年으로 갈수록 많아졌다.

<표 41> 이성교제 여부

구분	항목	하고있다		하고있지않다		재학시절에하겠다		졸업후에하겠다		하지않겠다.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3	18.8	6	37.5	5	31.3	·	·	1	6.3	1	6.3	16
	여	2	5.0	28	70.0	8	20.0	·	·	1	2.5	1	2.5	40
	계	5	8.9	34	60.7	13	23.2	·	·	2	3.6	2	3.6	56
2 학 년	남	2	15.4	6	46.2	3	23.1	1	7.7	1	7.7	·	·	13
	여	5	13.9	14	38.9	9	25.0	5	13.9	3	8.3	·	·	36
	계	7	14.3	20	40.9	12	24.5	6	12.2	4	8.1	·	·	49
3 학 년	남	2	22.2	1	11.1	6	66.7	·	·	·	·	·	·	9
	여	8	21.6	21	56.8	3	8.1	1	2.8	1	2.8	3	8.1	37
	계	10	21.7	22	47.8	9	19.6	1	2.2	1	2.2	3	6.5	46
총	계	22	14.5	76	50.3	34	22.5	7	4.6	7	4.6	5	3.3	151

2) 異性交際 動機

異性交際를 하는 경우 그 動機는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반응이 62.9%로 현저하게 높았는데, 이를 제외하면 우연한 기회(13.9%)나 회합을 통하여(11.9%)나 친구소개(5.3%), 기타(4%)등은 낮은 반응이었으며, 친척이나 급우의 소개로는 1~2사람 있는 정도였는데, 부모님의 소개로는 한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無反應이 가장 많은 分布를 보인 것은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절반수준의 많은 학생들이 異性交際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었다. 崔耕順(1986)에 의하면 異性交際 動機에 대한 韓·日 女大生の 比較에서 친구의 소개로 교제하는 경우가 日本의 學生들은 2.3%로 가장 적었으나 韓國의 여학생은 38.8%로 가장 많았다고 發表하였는데, 本 調査에서 '친구소개' 5.3%와 비교하면 너무나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特異한 現象이었다.

< 표 42 > 이성교제 동기

구분	항목	부모님소개		회잡음통해		친척소개		친구소개		우연의		잡우소개		기 타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	·	4	25.0	·	·	·	·	2	12.5	·	·	·	·	10	62.5	16
	여	·	·	3	7.5	·	·	2	5.0	4	10.0	·	·	·	·	31	77.5	40
	계	·	·	7	12.5	·	·	2	3.6	6	10.7	·	·	·	·	41	73.2	56
2 학 년	남	·	·	·	·	·	·	3	23.1	3	23.1	·	·	·	·	7	53.8	13
	여	·	·	3	8.3	1	2.8	2	5.6	3	8.3	1	2.8	4	11.1	22	61.1	36
	계	·	·	3	6.1	1	2.0	5	10.2	6	12.2	1	2.0	4	8.1	29	59.1	49
3 학 년	남	·	·	3	33.1	·	·	·	·	2	22.2	·	·	1	11.1	3	33.3	9
	여	·	·	5	13.5	1	2.7	1	2.7	7	18.9	·	·	1	2.7	22	59.5	37
	계	·	·	8	17.4	1	2.2	1	2.2	9	19.6	·	·	2	4.3	25	54.3	46
총 계		·	·	18	11.9	2	1.3	8	5.3	21	13.9	1	0.6	6	4.0	95	62.9	151

3) 異性交際 하지 않는 理由

異性交際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理由는 < 표 4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회가 없어서’가 29.8%로 가장 많은 분포였고, 그 다음으로는 ‘필요 없다’는 學生이 22.5%, ‘相對者가 없어서’ 15.2%였는데 時間이 없다거나 保守의 家庭, 經濟 또는 家庭에 異狀이 있다거나 해서 교제하지 않는 경우 등은 극히 낮은 分布이었다. 低學年일수록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고, 2, 3학년 女學生의 경우는 필요없다는 反應이 많았다.

< 표 43 > 이성교제 하지 않는 이유

구분	항목	기회없음		상대없음		필요없음		시간없음		보수적가정		가정예비상		경제		기 타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7	43.8	2	12.5	·	·	1	6.3	·	·	·	·	1	6.3	5	31.3	16
	여	18	45.0	4	10.0	4	10.0	2	5.0	2	5.0	·	·	1	2.5	9	22.5	40
	계	25	44.6	6	10.7	4	7.1	3	5.4	2	3.6	·	·	2	3.6	14	25.0	56
2 학 년	남	3	23.1	1	7.7	5	38.5	·	·	·	·	·	·	·	·	4	30.8	13
	여	9	25.0	8	22.2	13	36.1	·	·	·	1	2.8	·	·	·	5	13.9	36
	계	12	24.5	9	18.4	18	36.8	·	·	·	1	2.0	·	·	·	9	18.4	49
3 학 년	남	2	22.2	2	22.2	2	22.2	·	·	·	·	·	·	·	·	3	33.3	9
	여	6	16.2	6	16.2	10	27.1	3	8.1	1	2.7	·	·	·	·	12	29.7	37
	계	8	17.4	8	17.4	12	26.1	3	6.5	1	2.1	·	·	·	·	14	30.4	46
총 계		45	29.8	23	15.2	34	22.5	6	4.0	3	2.0	1	0.7	2	1.3	37	24.5	151

4) 結婚 相對者의 選擇條件

結婚 相對者의 選擇條件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담으로서는 < 표 4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愛情(41.1%)과 理解心(31.1%)이 가장 많은 分布로 82.2%를 차지하였고, 相關하지 않겠다는 無反應이 8%였으며, 社會的 信望, 健康, 같은 宗教人등이 각각 4.6%, 용모 3.3%, 財力 2%, 학벌 0.7%로 나타났다. 愛情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학년에 관계없이 女學生보다는 男學生쪽에서 훨씬 많은 關心을 보였다. 健康을 選擇한 學生은 2년전(0.8%)에 비해 4.6%로 增加되어 現實的으로 볼 때 家庭을 꾸밀 경우 健康한 배우자를 選擇하는 것이 重要的 條件이라는 側面에서 肯定的인 變化라고 생각되었다.

< 표 44 > 결혼상대자의 선택조건

구분	항목	재력		애정		학벌		용모		사회적신망		건강		이해심		같은종교인		무반응		계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	·	10	62.5	·	·	·	·	·	1	6.3	3	18.8	·	·	2	12.5	16	
	여	·	·	14	35.0	·	·	·	·	2	5.0	3	7.5	16	40.0	·	·	4	10.0	40
	계	·	·	24	42.9	·	·	·	·	2	3.6	4	7.1	19	33.9	1	1.8	6	10.7	56
2 학 년	남	·	·	6	46.2	·	·	2	15.4	·	·	·	5	38.5	·	·	·	·	13	
	여	2	5.6	14	38.9	·	·	2	5.6	2	5.6	1	2.8	11	30.6	2	5.6	2	5.6	36
	계	2	4.1	20	40.8	·	·	4	8.2	2	4.1	1	2.0	16	32.7	2	4.1	2	4.1	49
3 학 년	남	·	·	6	66.7	·	·	1	11.1	·	·	·	2	22.2	·	·	·	·	9	
	여	1	2.7	12	32.4	1	2.7	·	·	3	8.1	2	5.4	10	27.0	4	10.8	4	10.8	37
	계	1	2.2	18	39.1	1	2.2	1	2.2	3	6.5	2	4.3	12	26.1	4	8.7	4	8.7	46
총 계	3	2.0	62	41.1	1	0.7	5	3.3	7	4.6	7	4.6	47	31.1	7	4.6	12	8.0	151	

5) 結婚 相對者의 學力水準

結婚할 相對者를 選擇할 때 어느 程度의 學力水準을 願하는가를 調查한 結果 < 표 45 >에

< 표 45 > 결혼상대자의 학력 수준

구분	항목	국		중고		대		대학원		해외		관계		무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1 학 년	남	·	·	·	·	8	50.0	·	·	·	6	37.5	2	12.5	16	
	여	·	·	·	·	21	52.5	6	15.0	1	2.5	8	20.0	4	10.0	40
	계	·	·	·	·	29	51.8	6	10.7	1	1.8	14	25.0	6	10.7	56
2 학 년	남	·	·	·	·	9	69.2	·	·	·	4	30.8	·	·	13	
	여	1	2.8	·	·	29	80.5	4	11.1	1	2.8	1	2.8	·	·	36
	계	1	2.0	·	·	38	77.6	4	8.2	1	2.0	5	10.2	·	·	49
3 학 년	남	·	·	·	·	6	66.7	·	·	·	3	33.3	·	·	9	
	여	·	·	1	2.7	25	67.6	2	5.4	·	·	5	13.5	4	10.8	37
	계	·	·	1	2.1	31	67.4	2	4.3	·	·	8	17.4	4	8.7	46
총 계	1	0.6	1	0.7	98	64.9	12	7.9	2	1.3	27	17.9	10	6.6	151	

서 보듯이 大卒이 64.9%로 顯著하게 많았고, 關係하지 않겠다는 사람 17.9%, 大學院 卒業의 사람을 擇하겠다는 학생이 7.9%나 되었다. 大卒 이상의 학력수준을 원하는 경우가 72.8%로 절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의 학력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것을 暗示하였는데, 女學生들은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여 本人의 學力보다 높은 大學院 卒業의 男性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男學生의 경우에는 結婚 相對者의 학력수준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女學生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結婚 相對者의 職業

結婚 相對者를 選擇할 때 어떤 職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하는가를 조사한 것은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이 45%의 많은 학생들이 關係하지 않겠다고 應答하였다. 이를 제외하면 教師(17.9%)와 教授(4.6%)에 22.5%로 比較的 많은 關心을 보였고, 일반 공무원, 社會員, 엔지니어, 農業人, 實業人, 藝術人 등은 2~4%였으며, 의사, 약사, 군인, 政治家 등은 0.7%로 극히 낮은 反應을 보였는데, 법관, 외교관, 금융인, 체육인등을 結婚 相對者로 원하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 特異한 反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結果로서 教師와 教授에는 關心이 있는 반면, 의사, 약사, 군인, 정치인, 법관, 외교관, 금융인, 체육인 등은 結婚 相對者로서 거의 關心이 없는 職業으로 分析되었다.

< 표 46 > 결혼상대자의 직업

구분 항목	1학년			2학년			3학년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교 수	·	3(7.5)	3(5.4)	·	3(8.3)	3(6.1)	·	1(2.7)	1(2.2)	7(4.6)
교 사	5(31.3)	5(12.5)	10(17.9)	7(53.8)	2(5.6)	9(18.4)	5(55.6)	3(8.1)	8(17.4)	27(17.9)
의 사	·	1(2.5)	1(1.8)	·	·	·	·	·	·	1(0.7)
군 인	·	·	·	·	1(2.8)	1(2.0)	·	·	·	1(0.8)
실 업 인	·	1(2.5)	1(1.8)	·	1(2.8)	1(2.0)	·	·	·	3(2.0)
예 술 인	·	2(5.0)	2(3.6)	2(15.4)	2(5.6)	4(8.2)	·	·	·	6(4.0)
약 사	·	·	·	·	1(2.8)	1(2.0)	·	·	·	1(0.7)
농 업 인	·	·	·	·	1(2.8)	1(2.0)	·	2(5.4)	2(4.3)	3(2.0)
엔 지 니 어	·	2(5.0)	2(3.6)	·	1(2.8)	1(2.0)	·	1(2.7)	1(2.2)	4(2.6)
정 치 인	·	·	·	·	1(2.8)	1(2.0)	·	·	·	1(0.7)
화 사 원	·	3(7.5)	3(5.4)	·	2(5.6)	2(4.1)	·	·	·	5(3.3)
일반공무원	·	3(7.5)	3(5.4)	·	2(5.6)	2(4.1)	·	1(2.7)	1(2.2)	6(4.0)
관 계 없음	9(56.3)	16(40.0)	25(44.6)	4(30.8)	15(41.7)	19(38.8)	4(44.4)	20(54.1)	24(52.2)	68(45.0)
무 반 응	2(12.5)	4(10.0)	6(10.7)	·	4(11.1)	4(8.2)	·	8(21.7)	8(17.4)	18(11.9)
계	16(100)	40(100)	56(100)	13(100)	36(100)	49(100)	9(100)	37(100)	46(100)	151(100)

IV. 要約 및 提言

1987學年度 1학년, 2학년, 3학년 學生 176명中 85.8%에 해당되는 151명의 濟州教大 學生을 對象으로 그들의 身上特性, 家庭環境, 經濟與件, 本校志望과¹ 深化課程 選擇, 大學生活에 대한 態도와 關心事項, 異性 및 結婚觀等 6개 領域에 걸쳐 全般的인 特性和 實態 把握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얻기 위하여 46개 項目으로 構成된 設問紙에 의한 設問調查를 實施한 後 蒐集된 資料를 分析하였다. 處理된 資料는 각 問項의 變因에 대한 學年別, 性別 反應特性和 關聯性을 調查 分析하여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고 提言하면 다음과 같다.

1. 要 約

1) 身上特性

宗教的인 背景은 宗教를 가지지 않은 學生이 51%로 가장 많았고, 佛敎 22.5%, 基督教 17.2%, 카톨릭 9.3%의 順이었다. 男學生은 宗教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宗教中 카톨릭을 믿는 男學生은 全無하였다.

再修 經驗與否의 調查에서는 89.4%가 再修를 하지 않았으며, 7.2%의 學生이 1년 再修한 것으로 나타났고, 男學生의 경우에 再修 經驗程度가 女學生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2년 이상의 再修 經驗者는 0.6%뿐이었고, 3년 이상은 한명도 없었다.

學生들의 主된 成長地는 市廳 所在地가 49.7%로 가장 많은 分布였고, 邑面 所在地 35.8%, 僻地 7.3%, 郡廳 所在地 5.3%, 島嶼地方 2%로 나타났는데, 市廳 所在地 出身은 女學生의 경우에 많았으며, 男學生의 경우는 僻地 出身이 女學生보다 많았다. 學生들의 全體 出身地域(道)의 分布는 地域 特殊性에 비추어 濟州道 出身이 96.6%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등 他道出身 學生은 3.4%로 나타났다.

2) 家庭環境

學生들의 家族 構成員中에서 祖父母가 모두 生存한 경우는 19.9%로 나타났고, 兩親이 모두 生存해 계신 學生은 80.8%나 되었으며, 편모 슬하의 경우는 17.2%로서 전보다 增加되었는데, 特히 2학년 남학생은 30.8%로 顯著히 많은 分布를 보였다.

出生順位는 27.8%의 學生이 2번째로서 가장 많은 分布였고, 學生들의 家族數에 있어서는 6~7명으로 構成된 家庭이 全體의 51%로 家族數가 減少되는 傾向이었으며, 特히 2년전 전혀 없었던 3명 家族이 新入生의 경우 7.2%나 되어 現代의 核家族化 社會를 反映하였다.

學生들의 住居條件은 자취생이 45%로 가장 많았는데, 1, 2학년 學生의 경우 더욱 많은 分布로 나타났다. 父親의 教育程度는 高卒이 32.5%로 가장 높고, 國卒, 中卒, 大卒의 順이었는데, 母親의 경우는 國卒이 62.9%로 가장 많고, 中卒, 無學, 高卒, 大卒의 順으로서 母親의 教育程度는 낮은 水準이었다.

父母의 職業은 農業·漁業이 58.9%로 가장 많고, 商業·서비스業 15.81%, 일반공무원 5.9%의 順으로 나타났으나 無職도 5.2%나 되었다. 父母의 態度에 對하여 學生들이 生覺하는 것은 保守的이고 權威的이라는 反應이 42.4%로 가장 높았고, 普通이 41.1%이었으나 民主的이라는 學生은 16.5%에 불과하였다. 自己 家庭의 雰圍氣가 和睦하다고 느끼는 學生은 54.8%로 대다수의 學生들이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고, 女學生들의 경우 더욱 높았다.

3) 經濟與件

在學中 家庭 經濟形便은 49.6%의 學生들이 普通水準이었지만, 곤란하거나 매우 곤란한 家庭이 44.2%로 家庭經濟事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學費調達方法은 거의 父母가 부담하는 것으로 86.7%를 나타냈으며, 學費調達事情은 42.2%의 學生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3학년과 남학생의 경우엔 곤란한 比率이 더욱 높았다. 용돈은 월평균 1만원은 쓰는 학생이 38.9%로 가장 많았고, 1~2만원 25.8%로서 2만원까지 쓰는 學生이 絶對多數로서 대부분 용돈을 節約하여 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學 在學中 副職을 希望하는 學生은 62.9%로 많은 편이었고, 希望하는 理由로는 용돈 調達과 學費調達등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 62.2%로 가장 많았는데, 本人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용돈이나 學費를 解決하려는 學生들은 高學年으로 갈수록 많았다.

4) 本校志望과 深化課程 選擇

本校는 志願하게 된 動機는 주로 父母의 권유, 권직, 경제등의 媒論으로 나타났고, 敎職에 대한 使命感 때문이라는 動機의 分布率은 대단히 낮았다.

濟州教大生이 된 矜持로 자랑스럽다는 肯定的인 反應을 보인 學生은 55.7%였고, '그저 그렇다'는 소극적이거나 肯定的인 態度를 포함하면 94.1%로 대부분 本 大學 學生으로서의 矜持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敎職에 대한 見解는 96.7%의 학생이 보람있고 해볼만한 職業이라는 肯定的인 評價를 하였다.

深化課程은 本人이 專攻하고 싶거나 해당 學年의 科目이 좋아서 選擇을 하였으나, 이에 滿足하는 경우와 普通인 肯定的 反應이 66.4%로 나타난 반면 29.4%는 現在의 深化課程에 不滿이 있고 31.6%의 學生들이 轉科를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女學生의 경우는 더욱 높았다.

5) 大學生活에 대한 態度와 關心事項

高校時節에 生覺했던 大學入學後 가장 바랬던 點은 人間的 待遇와 教科教育에 비하여 趣味生活와 自然스러움을 대부분 願했으나, 進學한 後에 느끼고 있는 가장 經驗하고 싶은 것으로서는 우선 學問的 探究라 하였고 親舊交際, 趣味活動, 씨클活動, 異性交際의 順으로 反應하였는데, 高學年일수록 그리고 女學生일수록 學問的 探究를 더욱 願했다. 大學生活中 希望 씨클活動은 教養과 學術, 藝術 分野가 많고 그외에 親睦, 娛樂, 體育, 奉仕, 宗教의 順으로 나타났다. 大學 卒業後 進路計劃은 72.2%의 學生이 教職, 22.5%가 大學院 進學을 願하여 教職에 대한 目標意識이 뚜렷하였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貴重히 여기는 것은 社會的 價値라고 하는 學生이 절반 水準이었고, 宗教的·學問的 價値도 다소 있었으나, 經濟的·政治的 價値는 극히 낮은 反應을 보였다. 우리 社會에 있어서 成功하는데 필요한 要因은 實力이라는 學生이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對人關係도 3분의 1程度 되었으나, 學問, 家門, 權力, 財力이라는 反應은 극히 적었다.

大學 在學中 學校에 대한 關心事項은 學生團體씨클과 專攻이었고, 가장 큰 當面 問題는 學業問題가 많았으며 그외에 經濟, 交友, 異性, 家庭, 健康問題의 順으로 나타났다. 不安 解消 方法으로는 親舊나 知인과 相談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音樂鑑賞, 조용한 散策, 스포츠등의 順이었다.

問題가 생겼을 때 60.9%의 學生이 신뢰할 수 있는 相談者가 없다고 하였다. 같이 의논하는 相對는 親舊가 38.4%로 가장 많고,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21.2%였으며, 父母는 13.2%였는데, 형제·자매, 異性親舊, 教授, 學生指導研究所등은 극히 낮은 分布를 보였다. 그러나 學生指導研究所의 相談教授와 적극적으로 相談을 원하는 경우는 7.3%였고, 기회가 있으면 相談을 하겠다는 學生은 64.2%로 높게 나타났고 男學生의 경우엔 相談 希望者가 더욱 많았음을 볼때 學生指導研究所의 相談機能이 實질히 요청되었다.

特講에 대한 見解는 新入生의 경우 無反應이거나 有益한 것으로 肯定的인 측면에서 希望하고 있으나, 2, 3학년의 경우엔 그저 그렇다는 學生이 증가되고 有益하다는 反應은 減少되었다. 원하는 特講內容은 教養이 가장 많고, 기타 컴퓨터와 전문적인 것, 레저스포츠, 書藝와 語學, 꽃꽂이, 茶道의 順으로 나타났다.

6) 異性 및 結婚觀

現在 異性交際의 與否는 하고있지 않는 學生이 50.3%로서 많은 편이었고, 14.5%의 學生만이 異性交際中이고, 在學時節에 하겠다는 學生은 22.5%로 나타났다. 異性交際 動機로는 우연한 기회나 會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異性交際를 하지 않는 學生들의 그 理由로는 기회가 없는 경우 29.8%로 가장 많고, 필요없다는 學生이 22.5%, 相對者가 없어서는 15.2%였다.

結婚 相對者에 대하여 選擇條件은 대부분 愛情과 理解心을 들었고, 學力程度는 大卒을 거의 원했으나, 男學生의 경우엔 結婚 相對者의 學力水準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反應이 女學生보다도 훨씬 많았다. 結婚 相對者의 職業은 關係하지 않겠다는 學生이 45%로 가장 많았고, 教師와 教授를 相對者로 원하는 경우가 22.5%로 比較的 높은 關心度를 나타내었다.

2. 提 言

本 研究에서 나타난 特徵的인 結果의 시사점을 基礎로 提言하면 다음과 같다.

1) 家庭 經濟事情의 곤란으로 學費調達이 어려운 學生들이 많고, 他大學 學生들보다 용돈을 훨씬 節約하며, 62.9%가 副職을 希望하는 것으로 나타나 經濟的 問題에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經濟的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 學校 當局에서는 多樣한 副職 알선을 위한 地域社會와의 連繫機能을 強化해야 할 것이며, 銀行융자의 알선이나 獎學金 수혜자의 擴大등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2) 92.1%의 대다수 학생들이 씨클活動에 적극 참여하거나 또는 希望하고 있는데, 씨클의 教育的 機能을 감안해 볼 때 大學生活에 있어서 重要한 필수적 活動이므로 特히 新入生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強化하고, 올바른 씨클活動을 할 수 있도록 積極적인 指導가 필요하다.

3) 大學入學의 가장 큰 動機로 父母의 권유, 就職, 經濟등에 있고 敎職에 대한 使命感이 낮은 學生들의 分布가 많은 形便으로서 大學의 本質을 歪曲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本 大學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그 特性을 살리되 教育的 價値와 敎職에 대한 使命意識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指導되어야 한다.

4) 學生들의 가장 큰 當面問題로서는 대부분 學業問題로 나타났는데, 教授와의 지속적인 相談을 통하여 合理的으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도록 指導해야 한다.

5) 深化課程 選擇은 대부분의 學生이 肯定的인 反應을 보였으나 轉科를 希望하는 學生이 3분의 1 水準에 이르고 있는 狀況으로서 深化課程의 올바른 選擇을 위해서는 확고한 信念을 갖고 選擇할 수 있도록 積極적인 事前指導가 필요하며, 分班時期, 轉科許容등의 적절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6) 特講에 대하여 新入生들은 無反應이거나 肯定的으로 希望하였지만 在學生들은 10.5%만이 肯定的인 評價를 하였는데, 앞으로 特講을 實施할 경우 學生들이 希望하는 分野의 內容에 맞추어 特講의 效率性을 提高시킬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7) 異性交際를 하고 있는 學生은 많은 편이 아니나 在學時節에 하겠다는 學生들이 있고, 또한 異性交際 經驗이 없는 學生들이 많은 實情으로서 이들이 健全한 異性交際를 할 수 있도록 敎養講座나 集團指導가 필요하다.

8) 大學生活中 問題가 생겼을 때 신뢰하는 相談者가 없고 親舊와 의논하거나 혼자 生覺하는 學生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學生들이 學生指導研究所의 相談教授와 적극적으로 또는 기회가 있으면 相談을 하겠다고 希望하는 實情에 있다. 따라서 本 大學의 學生指導研究所에서는 最小限의 可能的한 專門領域別 相談教授 및 相談助教등 專門要員을 확보하여 學生들이 주저하지 않고 相談室을 찾을 수 있도록 學生指導研究所의 機能을 점차 活性化하여 學生相談과 指導에 적극적으로 對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駿模, '86學年度 서울教大 新入生の 實態調查, 學生指導研究, 第14輯, 서울教育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87, pp. 41~74.
- 公州師大 學生指導研究所 조사연구부, 재학생 실태조사 결과, 學生指導研究所, 第15輯, 公州師範大學 學生指導研究所, 1986, pp. 115~131.
- 東亞大 學生生活研究所 研究部, 1986學年度 新入生 特性 基礎調查 結果分析, 學生研究, 第15輯, 東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101~145.
- 成周鉉, 學生指導 資料調查 研究, 論文集, 第15輯, 濟州教育大學, 1985, pp. 159~201.
- 圓光大 學生生活研究所 研究部, 1986年度 新入生の 諸特性, 學生指導研究, 第7號, 圓光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61~93.
- 任昌元, 1986學年度 群山大學 新入生 實態調查, 學生生活研究, 第5輯, 群山大學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75~98.
- 張眞鎬, 教育과 社會, 서울 大思出版社, 1986, p. 67.
- 陣庸宇·金長源, '86學年度 新入生の 態度, 價值觀 및 實態調查研究, 學生生活研究, 第4號, 慶熙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71~114.
- 崔耕順, 韓·日 女大生の 意識構造에 對한 比較研究, 學生生活研究, 第6輯, 釜山女子大學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45~78.
- 釜山女大 學生生活研究所, 1986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자료), 學生生活研究, 第6輯, 釜山女子大學 學生生活研究所, 1986, pp. 79~118.
- 忠南大 學生生活研究所 調查研究部, 1986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結果分析, 學生生活研究, 第14輯, 1986, pp. 51~102.

< Summary >

A Surve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Cheju Teachers College Students

Kim, Young-Yong

This survey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 of Cheju Teachers College students of 1987 academic year. The data were the freshmen, sophomore and junior responses obtained in the questionnaire of 46 alternative issues. The results obtained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were showed that 51 per cent of them had no religiousness, 7.2 per cent had experience repeating a college entrance exam, and 96.6 per cent of their home town was Cheju district.

As their home environmental conditions, 80.8 per cent of the students had both parents and 17.2 per cent had widow. The size of their family was six or seven in the greater part. The students of 45 per cent was their own cooked and more per cent in freshmen and sophomore. The majority of their parents occupation was farmer, therefore, the greater number of students thought that their parents held a conservative and authoritative way of thinking. But they considered living within a harmonious family.

The economic condition of their family was 49 per cent normal situation and 44.2 per cent difficult level. So an absolute majority of students in economic problem cut down their pocket money, and wanted to work at a part-time job.

The prime motive entered this teachers college was due to the inducement of their parents, or for occupation and home economic situation, those students were charged with a low mission about teaching profession. The majority of two thirds were satisfied with their subject, but one thirds desired changing their course.

The major part of students took a view that the most desirable thing in personal experience during their college life was academic pursuit and substantial ability was a prime factor for success. There were no trustworthy councillor in serious situation of their personal affairs, and held counsel with their friends or thought alone its matter. However, given a chance, they hopped to discuss with a counselling professor of student guidance center. For that reason, the function of the student guidance center should be activated in counselling and guidance for solving their problems.